

제2장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최은영  박영실

제1절 서론

출산력 감소의 현황과 인과구조에 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 즉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 연구가 필요하다. 차별 출산력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사회학·경제학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Robinson, 1997). 출산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지만, 우선,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영유아보육법상의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과 자산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요 출산정책이 기본적으로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산의 경제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민희철, 2008).

소득은 차별 출산력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연구 주제로 국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지역별·시기별로 다른데 특히 남성 임금·여성 임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시기별·출생아 순위별로 다르다(Sleeboos, 2003).¹⁾ Addio and Ercole(2005)의 OECD 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별·시기별로 달라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

외국에 비해 출산력에 대한 소득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과거에는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1974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 효과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체계적인 분석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김

1) 정반대의 경제 상황이 출산력 감소라는 동일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황기의 노동시장과 더 많은 직업 기회는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되게 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여성들은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됨에 따라 출산율은 감소할 수 있다(Sleeboos, 2003).



두섭, 2007). 국내의 출산 관련 실증 연구는 대부분 인구나사회학적 요인의 분석에 주목한 반면, 소득·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현황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최은영·박영실(2010)의 기존 연구 역시 교육수준과 직업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연구는 이의 후속 연구로써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연구가 빈약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득과 임금을 교육수준을 통해 추정하거나(민희철, 2008),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로 소득을, 가구의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로 거주 지역의 공시지가 평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신혜원 등,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관련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인구주택총조사에 소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출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득·자산에 관한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소득과 자산 현황, 출산 정보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통계청의 자료에 대한 외부 이용자의 접근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계청 내부에서의 분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자산조사 등 통계청의 가용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 자료는 무응답 비율이 높고, 그 자료의 품질 또한 열악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인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자료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통해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표본 자료가 표본수의 제한 등으로 인해 하위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이미 관찰되기 시작한 오래된 현상으로, 장기적인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례수의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에 기반해서 타지구택 소유여부 등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점유 형태 및 타지구택 소유여부 등 경제적 특성은 유배우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소득(남성과 여성 소득)과 경제활동상태는 유배우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셋째, 자산은 유배우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소득별 차별 출산력에 관한 문헌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반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는 소득별 차별 출산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국외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증 분석에 대해서는 자료와 연구 방법에서 별도로 기술하였다.

제2절 문헌 연구

1. 이론적 논의

경제학적 접근은 베커(Becker, 1960) 이래로 출산과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이론 틀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 이전까지 출산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사회학적·심리학적 접근법이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하거나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제학적 접근법은 발표되자마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Robinson, 1997). 이 접근법에서 출산 행위는 근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부모는 소비자 수요 이론(consumer demand theory)에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자녀 출산 시 초래되는 비용 및 효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수를 결정한다(Hotz et al., 1996; 민희철, 2008; 김사현, 2009).

경제학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녀의 수 혹은 가족규모 간에, 정적인 관계를 가정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효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출산과 소득 사이의 정적인 관계와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이 발전되었다. 대표적으로, 베커를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 모델(Chicago model), 라이벤스타인 모델(Leibenstein's model), 그리고 이스털린 모델(Easterlin's model)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의 두 이론이 주로 많이 이용된다(Freedman and Thornton, 1982; Macunovich, 1996; 2003; Bollen et al., 2006).

가. 시카고 모델

베커는 소득이나 시간 등에 의해 개인의 행위가 제한된다는 경제적 개념을 가구 내에서의 생산 활동(household production)인 출산에 적용하였다(Robinson, 1997). 이 모델에서 자녀는 내구성소비재(cousumer durable goods)로 가정되는데, 가족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소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모는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효용



과 다른 상품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비교한다(Fulop, 1977).

베커는 소득 증가에 따라서 출산 또한 증가한다는 기존의 접근법에 대해 질과 양 모델(quality-quantity model)과 시간 할당 모델(time allocation model)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기존의 접근법이 산업화 사회에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부모들이 자녀의 능력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됨에 따라 대가족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Becker(1993)는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으로써 출산률이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소득의 증가가 자녀의 수(양)와 질 둘 다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양적 탄력성은 자녀의 질과 비교할 때 작은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Becker(1993)에 따르면, 가족 행동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선택은 효용의 최대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시간의 할당, 그리고 여성과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모델은 자녀양육이 여성의 책임하에 있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소득이 부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가정하였다(Macunovich, 2006). 출산 및 양육 관련 비용에는 식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직접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이외에도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이 근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이스털린의 이론

시카고 모델에서 출산과 소득 간의 부적인 관계에 대해 여성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인 가격효과(price effect)로 설명한 것과 달리, 이스털린(Easterlin)은 상대적인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상대적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과 출산 조절에 대한 한계 가설(threshold of fertility regulation hypothesis)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Easterlin(1978)의 상대적 소득 가설은 2차 대전 후 미국 내 베이비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젊은 성인의 실제적인 열망에 대한 상대적인 소득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는 젊은 성인들의 선호형성(preference 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세대, 경제적 발전, 부모의 생활수준 경험 등에 따라 변화한다(Easterlin, 1966; Macunovich, 2006). 그에 의하면 현재의 젊은 성인들은 몇 년 전까지 그들 부모 가구에 의존적인 가구 구성원이었고, 따라서 그들 부모의 가정 내에서 경험된 소비 수준이 그들의 물질적인 상품에 대한 현재의 선호를 형성한다. 그는 젊은 성인들에 의해 갈망되는 소비 수준은 10년전 그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응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는 부모 세대가 30대였을 때의 소득과 전후 젊은 성인들의 소득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그에 의하면 전후 젊은 커플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30대였을 때보다 자신들이 소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나

은 상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베이비붐을 이끌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젊은 성인들이 느낀 심각한 경제적 제약은 이후의 출산율 하락으로 설명된다(Fulop, 1977).

출산 제한에 대한 한계 가설은 저개발 국가에서의 출산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국가가 근대화될수록 원하지 않던 자녀로 인한 복지의 상실이 출산 조절 비용을 초과하는 한계 지점(threshold point)에 도달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산아 제한이 도입되고 출산 자녀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분석에서는 조절되지 않은 출산 체제하에서의 자녀의 공급(출산)과 출산 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2. 경험적 연구

소득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도 부적관계에서부터 정적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표 2-1>). 일반적으로 여성 임금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Heckman and Walker, 1990; Blacklow, 2006), 남성 소득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임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밝히는데 실패하거나(Zhang, Quan and Meerbergen, 1994) 혹은 설령 유의미한 효과를 밝혀내더라도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Del Boca, 2002). 그 결과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또는 국가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면, Ronsen(2004)은 첫째아와 둘째아 확률에 대한 여성 임금의 부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셋째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Heckman and Walker(1990)는 스웨덴의 출산력에 대해서는 여성 임금의 부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Tasiran(1996)은 여성 임금의 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좀 더 최근의 연구들은 젊은 여성의 연령별 출산률에 대한 여성의 임금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은 소득 측면에서는 정적인 효과를,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부적인 효과 둘 다를 발휘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적인 소득 효과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자녀 양육에 있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남성의 가사 분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성 임금의 증가가 가정 내 여성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구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임금의 증가는 그들의 모성(motherhood)과 경력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여성의 임금은 자녀에 대해서 강한 소득 효과와 약한 가격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Macunovich, 2006).

소득과 출산에 대한 국외연구에 비해 국내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국내의 출산관련



실증 연구는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주목한 반면, 경제적 요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원인은 출산 관련 데이터에 소득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데에 있다.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은 주로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Kim, 1983; 공선영, 2006; 민희철, 2008; 김사현, 2009; 신혜원 등, 2009). 소득별 차별 출산력 연구는 그동안 단절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1974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효과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체계적인 분석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김두섭, 2007). 그에 의하면 출산 관련 분석의 주 자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소득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소득과 출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경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관계가 분석 자료에 따라 상이하다. 관련 연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희철(2008)은 소득과 임금을 교육수준을 통해 추정하였다. 신혜원 등(2009)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소득에 대한 대리 변수로, 한국감정평가원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지역별 자료에 기반한 거주 지역의 공시지가 평균을 가구의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민희철(2008)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임금과 배우자 소득수준이 결혼 후 첫 번째 및 두 번째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를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의 증가가 첫째아 출산은 지연시키는 반면 배우자 소득이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는 첫째아 출산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고 두 번째 출산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의하면 여성의 임금은 자녀 출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혜원 등(2009)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 이상의 추가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높은 연령, 자녀의 기회비용,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은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기혼여성 및 남성의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의 높은 경제수준 등은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과 함께 여성의 취업에 주목한 국내의 연구들도 있는데,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분석한 공선영(2006)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혼전 취업경험, 취업여성의 월평균 소득, 종사상 지위가 통계적으로 희망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출산과 부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나 임시고용, 일용고용보다는 상용고용과 고용주인 경우가 희망자녀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취업상황보다는 여성의 취업상황이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표 2-1〉 출산력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

저자	국가 및 자료	변수	분석 결과
Heckman and Walker (1990)	스웨덴, 출산력조사	- 종속: 다음 자녀로의 출산 이행 - 독립: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평균 소득	- 여성 소득 부적 효과 - 남성 소득 정적 효과
Merrigan and St. Pierre(1998)	캐나다	- 종속: 다른 자녀로의 출산 이행 - 독립: 여성과 남성 소득	- 여성 소득은 부적 효과 - 남성 소득은 정적 효과
Tasiran(1996)	스웨덴과 미국	- 종속: 다음 자녀로의 출산 이행 - 독립: 여성과 남성의 임금	<스웨덴> - 여성 소득 정적 효과: 첫째 출산 - 여성 소득 부적 효과: 셋째 출산 - 남성 소득 정적 효과: 첫째, 둘째 출산 <미국> - 여성 소득 정적 효과: 첫째, 둘째, 셋째 - 남성 소득 부적 효과: 첫째, 둘째, 셋째
Blacklow(2006)	호주	- 종속: 출산 및 희망자녀수 - 독립: 여성과 남성의 임금	- 여성 소득 부적 효과
Zhang, Quan, and Meerbergen(1994)	캐나다	- 종속: 합계출산율 - 독립: 여성과 남성 소득	- 여성 및 남성 소득 효과 없음
Del Boca(2002)	이탈리아	- 종속: 지난 2년간 출산여부 - 독립: 가구소득	- 가구 소득 효과 없음
Kim(1983)	한국, 1974 전국 출산력조사	- 종속: 출산자녀수 - 독립: 가족 소득, 세대 가족 소득	- 가족 소득 정적 효과: 저소득가구 - 가족 소득 부적 효과: 중간소득가구 - 가족 소득 정적 효과: 고소득가구
공선영(2006)	한국,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종속: 희망자녀수 - 독립: 취업여성의 월평균 소득	- 여성 소득의 부적 효과
민희철(2008)	한국, 2003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종속: 첫째, 둘째 출산간격 - 독립: 여성 임금과 배우자 소득	- 여성 임금은 첫째 출산 지연 - 배우자 소득이 둘째 출산을 앞당김
김사현(2009)	한국, 노동패널조사 1~9차	- 종속: 출생 및 추가출산계획 - 독립: 총가구 소득, 금융재산, 여성 근로소득	- 소득 효과 없음
신혜원 등(2009)	한국, 2005 인총 5% 표본	- 종속: 추가자녀출산계획 - 독립: 가계의 경제수준	- 가계 경제수준의 정적 효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녀출산의 주요 결정요인은 향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사상 지위의 안정성이었다(공선영, 2006).

김사현(2009)은 1998~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요인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비정규직, 시간제, 임시직과 같이 고용상태가 불안한 여성에게서 출산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 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과 여성의 임금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보면 그 자료나 연구 방법 등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경우 출산과 정적인 관계 혹은 관계가 없는 경우, 비선형 관계 등 다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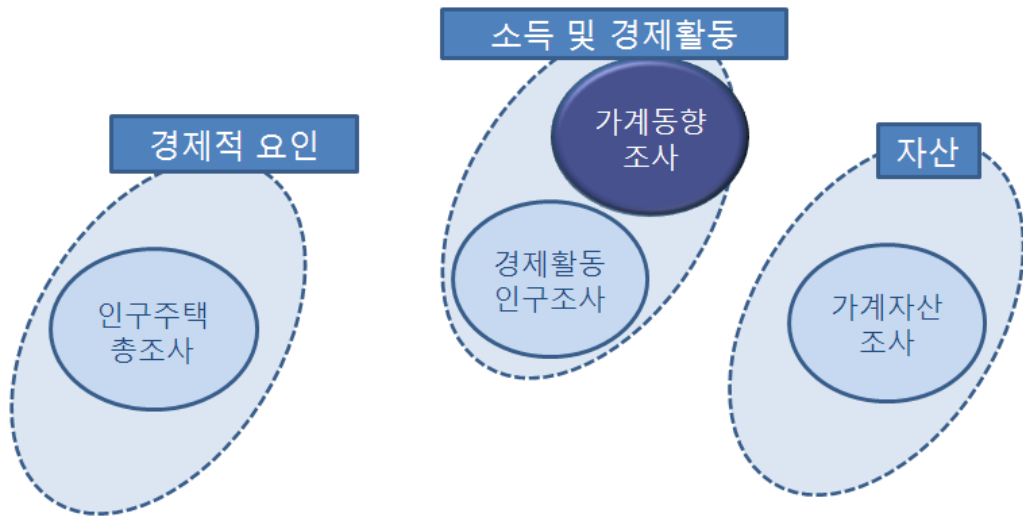
제3절 자료와 연구방법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적실한 자료가 필요하다. 국내의 차별 출산력 연구가 분석에 이용된 자료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가용한 여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그림 2-1]). 출산 관련 정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중요 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으며, 이 자료에는 또한 자산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자산조사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출산과 관련된 정보 또한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연계하여 경제활동상태 또한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이와 같이 여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함과 동시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원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모든 연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시계열적 일관성을 살펴 보았다.²⁾

2) 모든 연도를 분석하였으나, 지면의 제약상 분석 결과는 특정 연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1] 주요 연구 자료

1. 자료

가. 분석자료

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5년 주기로 조사된다. 전수조사와 10% 표본조사로 구분되며, 10% 표본 항목에 혼인년월과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등 출산력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주택점유형태, 타지주택 소유 여부 등의 항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구, 가구구분, 여성의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분석대상집단을 생성하였다. 조사구는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인 아파트조사구·보통조사구·섬조사구로,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1인 가구로 제한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10% 표본은 전국 1,591,63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5~4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남성 배우자가 동거하는 가구는 508,024가구이며, 혼인 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483,755가구로 이들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1.80명이다.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25~4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는 600,707가구인데, 이 중 혼인 년이 2년 이상된 534,143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1.79명으로 배우자 동거 여부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는 큰 차이가 없다.³⁾



2) 가계동향조사

가구 단위의 표본조사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우리나라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조사되는데, 소득과 함께 자녀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소득에 따른 출산력 분석이 가능하다. 이 자료의 경우, 동거자녀수 뿐 아니라 비동거미혼자녀수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생아수의 누락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며,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이나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며,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가구에서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가계부는 종이가계부와 전자가계부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전자가계부는 사용 희망 가구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표본조사의 경우 하위 집단으로 내려갈수록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수 확보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출생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한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한 번이라도 조사된 가구는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2003~2009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연도별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표 2-2>).

<표 2-2> 가계동향조사의 연도별 가구수

(단위: 가구)

년도	가구수
2003년	9,575
2004년	9,159
2005년	13,381
2006년	12,458
2007년	11,040
2008년	11,012
2009년	10,881

3) 가계동향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평균 출생아수는 큰 차이가 없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가계동향조사의 출산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및 실업 등 노동력 상태를 파악하는 공식통계로, 약 32,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가 실시된다. 표본가구의 1/36씩인 900가구가 매월 새롭게 진입하며, 가구가 36회를 응답하면 탈락하게 되는 연동표본제(rotation sampl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직전 1주간에 보조조사표를 배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나 직업, 산업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조사대상주간 이후에 가구를 방문하여 보조조사표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 때 응답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거나 거부가 심할 경우, 혹은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화조사나 자기기입식조사를 실시한다. 면접은 가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면접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구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에 의한 대리응답을 허용하고 있다.

4) 가계자산조사

가계자산조사는 가구의 자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의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각종 경제·사회·복지정책이나 학문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로 약 9,500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1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가구는 2006년 5월 기준 가계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이며, 조사담당 직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득 기준은 200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자산은 2006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자료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구수준의 미시적(micro) 관점에서 차별 출산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출산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출산 선택확률모형을 구축하였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은 여러 가지 자료의 연계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엑세스(Access)와 스타타(Stata)가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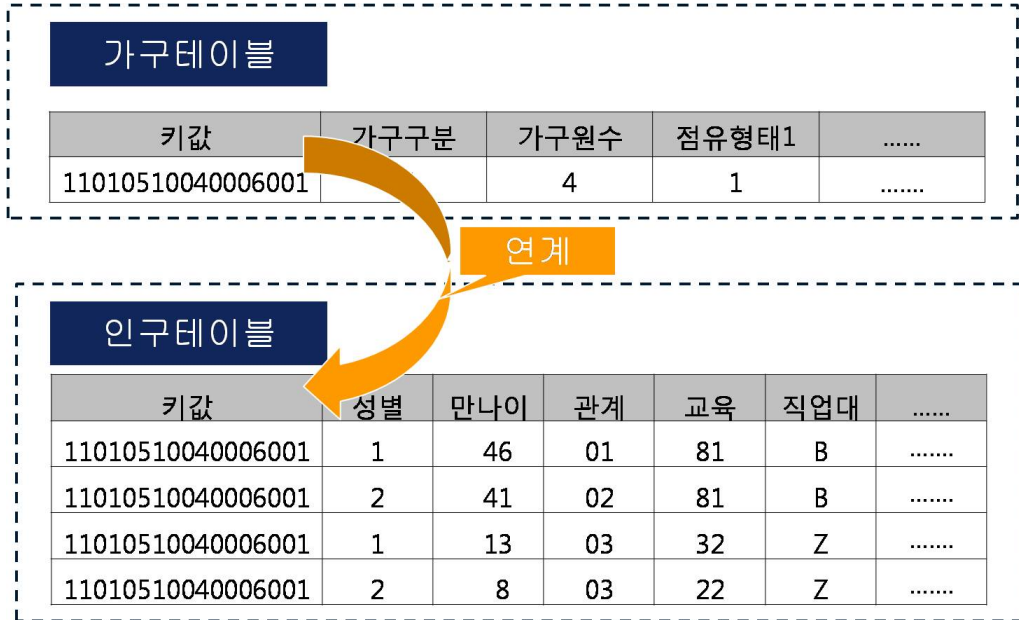
1) 데이터 내 연계

가계동향조사나 가계자산조사에서 자녀수를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가구와 인구 데이터의 데이터 내 연계 작업을 수행하였다([그림 2-2]). 차별 출산력 연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보다는 여성·남성 즉 성별에 따른 분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주와 배



우자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여성과 남성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가구와 인구의 1: 多연계
- 가구주와 배우자 기준 자료를 여성과 남성 자료로 재집계



[그림 2-2] 가구와 인구테이블의 연계

2)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계자료 생성

다음으로 가계동향조사에 부족한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계키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연계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소득과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결합하였다. 소득은 연평균 월소득을, 인구 특성은 조사가 이루어진 최종 월의 특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위 연계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 후, 이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25~44세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다.⁴⁾

2. 변수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서의 출산력은

4) 최은영·박영실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에서 미혼집단이 갖는 특성이 매우 독보적임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혼가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출생아수로 측정되었다. 각 자료별로 분석에 이용된 출생아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총출생아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비동거혼인자녀수가 제외된 출생아수(동거자녀수와 비동거미혼자녀수만 포함), 가계자산조사는 동거자녀수이다. 이 중 가계동향조사와 가계자산조사의 자녀수는 원자료에 대한 연산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 변수(derived variable)이다.

소득에 관한 주 자료원은 가계동향조사이다. 소득의 측정은 조작적 정의와 그 해석이 쉽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대부분의 소득 자료가 무응답 비율이 높고, 그 자료의 품질 또한 열악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소득 자료는 보너스 등과 같이 숨어있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im, 1983).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자료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통해서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조사과정의 관리를 통해 무응답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조사의 도입으로 통장 거래내역 등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소득 정보에 대한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의 합으로 측정되는 경상소득이다. 소득의 경우, 자료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경우에 따라 자료의 정규화를 위해 로그변환(log transformation)을 실시한 후 분석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많은 국외 연구에 의하면 남성 소득은 소득 효과, 여성 소득은 기회비용 효과로 작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별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다. 우리나라의 성별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성 소득과 여성 소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여성 소득으로, 남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남성 소득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⁵⁾

자산은 가계자산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도출이 가능하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자산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점유형태 및 타지주택 소유여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계자산조사의 경우, 총자산 및 순자산을 측정하였는데, 총자산은 저축총액과 부동산시가평가액, 그리고 기타자산평가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비경제활동, 실업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령을 통제하였다. 연령이 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이므로 실제 소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

5)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의 성별 구분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령을 통제한 후 차별 출산력을 살펴보았다. 25~4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로 분석 대상 집단을 한정함으로써 연령효과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분석 대상을 5세 간격별로 구분하여 동일 연령대에서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일 연령 집단의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 출산력은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4세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혼인·출산 연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출산이 진행 중인 20~30대 연령대에서는 연령효과를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요 분석 방법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이다.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소득과 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항로짓모델을 활용한 출산 선택확률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확률선택 모형의 하나인 다항로짓모델은 선택행위자가 주어진 대안을 선택할 때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효용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용은 선택행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선택 대상의 특성들의 결합인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이희연, 2008). 자녀가 없는 무자녀 집단을 준거로 하여 한자녀집단과 두자녀집단,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집단 예측에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tata를 이용하였다.

제4절 초저출산 사회의 등장과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

1. 초저출산 사회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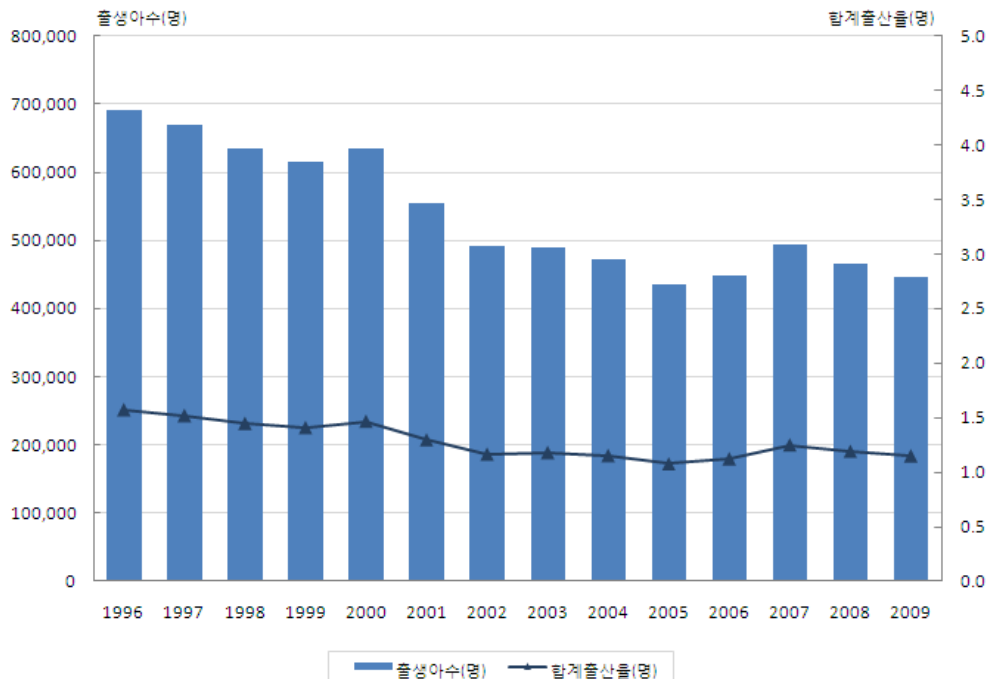
인구 전문가들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인구 폭발을 걱정했지만 현재는 초저출산(ultra-low fertility)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들로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Jones et al., 2008).⁶⁾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 감소 경향이 지속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개념적으로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0년대 6.0명 수준에서 1983년에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가정적인 상태에서 한 세대 후면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는 1.08명을 기록하였다(권태환, 2008).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1970년에는 약 100만 명 가량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 초저출산은 대체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으로 정의된다(Jones et al., 2008).

1980년대 중반에는 약 60만 명, 2009년 현재는 약 45만 명이 되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1970년 4.5명에서 7년만인 1977년에 3명 이하로, 다시 7년만인 1984년에는 2명 이하가 되었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황금돼지띠였던 2007년까지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에는 1.19명, 2009년에는 1.15명이 되어,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2-3], <표 2-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년도.

[그림 2-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1996~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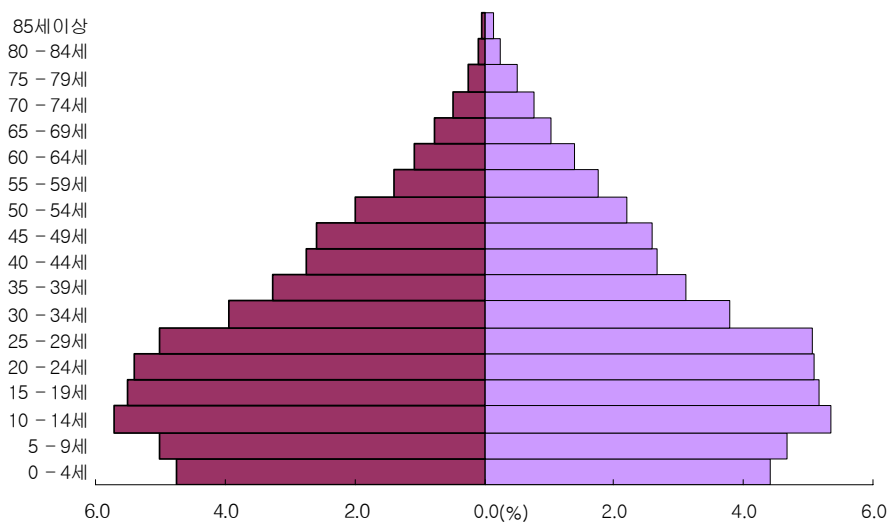
<표 2-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1996~2009년)

(단위: 명)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출생아수	691,226	634,790	634,501	492,111	472,761	435,031	448,153	493,189	465,892	445,200
합계출산율	1.57	1.45	1.47	1.17	1.15	1.08	1.12	1.25	1.19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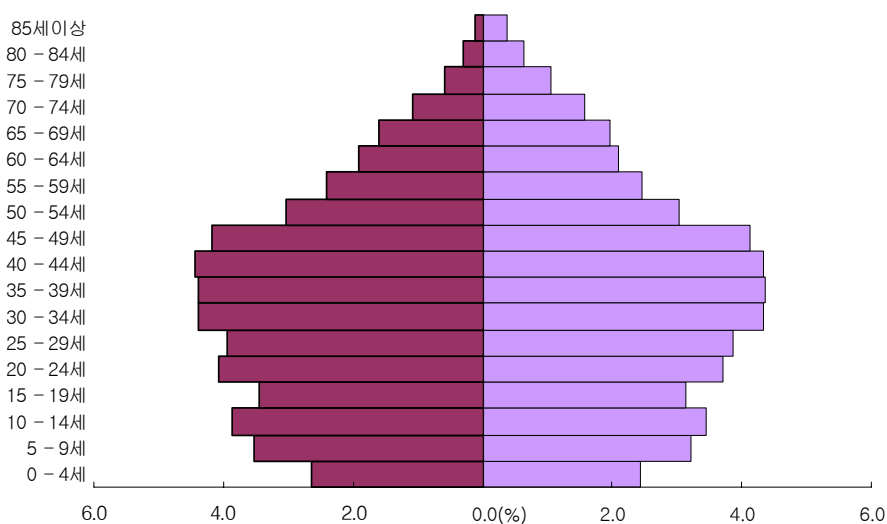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은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이미 관찰되기 시작한 오래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연령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5년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4], [그림 2-5]).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년.

[그림 2-4]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198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그림 2-5]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2005년)

피라미드의 유형이 상당히 변화되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

가. 주택점유형태와 타지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출산력

우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유배우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타지주택 소유여부와 같은 경제적 특성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4>, <표 2-5>).

<표 2-4> 주택점유형태별 유배우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가구)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5~44세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자가	1.29	15,765	1.70	61,043	1.98	90,138	2.03	105,568	1.90	272,514
전세	1.18	17,316	1.54	43,820	1.85	38,795	1.91	29,424	1.67	129,355
월세 등	1.25	8,254	1.60	18,512	1.84	19,467	1.87	17,754	1.70	63,987
전체	1.24	41,335	1.63	123,375	1.93	148,400	1.99	152,746	1.81	465,85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표 2-5> 타지주택 소유여부별 유배우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가구)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5~44세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없음	1.24	40,467	1.63	115,000	1.93	132,989	1.99	133,565	1.80	422,021
있음	1.23	3,411	1.64	14,278	1.93	20,665	2.01	23,380	1.85	61,734
전체	1.24	43,878	1.63	129,278	1.93	153,654	1.99	156,945	1.81	483,75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점유형태별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자가 1.90명, 월세 등 기타(월세) 1.70명, 전세 1.67명 순으로 평균 출생아수가 많으나, 35~39세, 40~44세에서는 자가, 전



세, 월세 순으로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4세의 경우 자가 2.03명, 전세 1.91명, 월세 1.87명의 평균 출생아수를 보여, 자가거주 가구와 비자가거주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크다.

타지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1.85명,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1.80명으로 타지에 집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았다.

나. 경제적 요인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오즈(odds)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발생할 확률의 비이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발생할 확률이 더 크고, 1보다 작으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김형석·김경희, 2010). 오즈비(odds ratio)는 두 오즈 간의 비율이다. 다항로짓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지수화하여 오즈비를 구함으로써 참조집단 대비 비참조집단의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2-6>은 25~44세 유배우 가구의 각 변수별 오즈비를 보여준다.

먼저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자녀출산확률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택점유형태 변수는 월세가구를 참조집단으로 자가와 전세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자가인 경우 무자녀인 경우에 비해 자녀 한 명을 낳을 확률이 1.6배, 두 명을 낳을 확률이 2.4배, 세 명 이상 다자녀를 낳을 확률이 2.4배 높았다. 전세의 경우 무자녀인 경우에 비해 자녀 한 명을 낳을 확률은 1.4배, 두 명을 낳을 확률은 1.4배, 다자녀를 출산할 확률은 1.1배였다.

타지주택 소유여부는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하였는데,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무자녀에 비해 한 명의 자녀를 낳을 확률이 1.14배, 두 명의 자녀를 낳을 확률이 1.29배, 다자녀를 낳을 확률이 1.36배였다.

학력의 참조집단은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집단인데, 학력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남성의 학력은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갈수록 무자녀에 대해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학력은 고졸까지는 중졸 이하의 학력에 비해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을 높이지만 대졸과 대학원졸의 고학력은 한자녀·두자녀·다자녀를 낳을 확률을 낮추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무자녀에 대해 1명을 낳을 확률은 91%, 2명을 낳을 확률은 49%, 다자녀를 낳을 확률은 23%였다.

〈표 2-6〉 경제적 요인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센서스(25~4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자가 거주	0.482	0.021	1.619	0.000
	전세 거주	0.325	0.021	1.384	0.000
	타지주택소유	0.132	0.026	1.142	0.000
	여성 연령	0.035	0.002	1.036	0.000
	남성 고졸	0.190	0.037	1.210	0.000
	남성 대졸	0.289	0.041	1.335	0.000
	남성 대학원졸	0.229	0.052	1.258	0.000
	여성 고졸	0.221	0.037	1.248	0.000
	여성 대졸	0.133	0.043	1.142	0.002
	여성 대학원졸	-0.091	0.058	0.913	0.119
	남성 실업	0.042	0.052	1.043	0.414
	남성 비경활	-0.418	0.031	0.659	0.000
	여성 실업	-1.213	0.056	0.297	0.000
	여성 비경활	0.594	0.016	1.811	0.000
상수	-0.599	0.074		0.000	
두자녀	자가 거주	0.858	0.020	2.359	0.000
	전세 거주	0.344	0.020	1.411	0.000
	타지주택소유	0.255	0.025	1.291	0.000
	여성 연령	0.179	0.002	1.196	0.000
	남성 고졸	0.309	0.035	1.362	0.000
	남성 대졸	0.330	0.039	1.391	0.000
	남성 대학원졸	0.299	0.050	1.348	0.000
	여성 고졸	0.493	0.035	1.637	0.000
	여성 대졸	-0.025	0.041	0.975	0.536
	여성 대학원졸	-0.711	0.057	0.491	0.000
	남성 실업	-0.232	0.050	0.793	0.000
	남성 비경활	-0.787	0.030	0.455	0.000
	여성 실업	-1.306	0.049	0.271	0.000
	여성 비경활	0.616	0.015	1.851	0.000
상수	-5.183	0.072		0.000	
다자녀	자가 거주	0.862	0.023	2.367	0.000
	전세 거주	0.063	0.025	1.065	0.011
	타지주택소유	0.310	0.028	1.364	0.000
	여성 연령	0.213	0.002	1.237	0.000
	남성 고졸	-0.025	0.038	0.976	0.514
	남성 대졸	-0.169	0.043	0.844	0.000
	남성 대학원졸	0.017	0.057	1.017	0.760
	여성 고졸	0.177	0.038	1.194	0.000
	여성 대졸	-0.655	0.045	0.519	0.000
	여성 대학원졸	-1.478	0.073	0.228	0.000
	남성 실업	-0.296	0.060	0.744	0.000
	남성 비경활	-0.838	0.036	0.432	0.000
	여성 실업	-1.940	0.079	0.144	0.000
	여성 비경활	0.613	0.017	1.846	0.000
상수	-7.386	0.084		0.000	



여성의 연령은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질 확률이 높았지만 다른 변수에 비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경제활동상태의 참조집단은 취업집단인데, 여성의 비경제활동상태는 무자녀에 대한 한자녀·두자녀·다자녀 확률을 높이는 반면, 실업은 자녀 출산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실업과 비경제활동 모두 한자녀·두자녀·다자녀 확률을 낮추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확률모형을 요약하면, 주택점유형태나 타지주택 소유여부는 여성 연령, 학력에 비해 계수의 절대값과 오즈비가 크며, 다른 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령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⁷⁾ 모델을 통해 확인된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차이가 연령효과를 배제하면 크지 않다는 최은영·박영실(2010)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제5절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 출산력

1. 소득별 차별 출산력

다음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와 출생아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5분위별, 그리고 소득구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가. 소득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와 출생아수 구성 비율

1) 평균 출생아수

<표 2-7> ~ <표 2-11>은 소득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를 연령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25~44세 전체 유배우 여성 집단을 보면, 대체로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 평균 출생아수보다 적으며,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 평균 출생아수보다 많다.⁸⁾ 소득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전국출산력조사에 기반한 김두섭(2007)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과 출산력의 관계는 V자 형태이다. 소득이 낮은 가구(1천만원 미만)에

7) 10세 연령대별 모델은 <부록> 참조.

8) 본 연구는 자료 간의 연계로 인해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공표된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소득분위별 임계값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서 출생아수가 많아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분포와 비교해 볼때, 소득이 낮은 가구(1천만원 미만)의 비율이 적어 표본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충분한 사례수가 포함되어 있는 1천만원 이상의 소득구간(1-3천만원, 3-5천만원, 5천만원 이상)에서의 출생아수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선형관계가 나타난다.

세부적인 연령집단으로 들어가 보면 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간의 정적인 관계는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그 경향은 크게 출산이 진행 중인 25~29세와 30~34세 집단과 완결출산력을 보이는 35~39세와 40~44세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출산이 진행 중인 집단에서는 소득과 출산과의 관계가 부적, 역 U자형 등 시점에 따라 역동적이었으나, 출산이 완결된 집단에서는 소득과 출산과의 정적인 관계가 시계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25~29세 집단에서는 전체의 경향과는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대체로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전체보다 많으며,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보다 적었다. 이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여성의 지연 출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⁹⁾ 30~34세 집단의 경우, 연도별로 소득과 출산과의 형태가 정적인 관계, U자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25~29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부적인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로의 과도기적인 경향이 보인다. 35~39세 집단의 경우 앞의 두 집단에 비해 출산과 소득과의 정적인 관계가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다. 2007·200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40~44세 집단은 대체로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전체보다 적으며,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보다 많았다.

소득과 출산과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과 출산과의 정적인 관계는 25~29세 집단에서 40~44세 집단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집단이 소득이 적은 집단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갖는 소득 효과를 보여주었다. 출산이 진행 중인 집단, 특히 25~29세 집단에서는 소득과 출산 간에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5분위 고소득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것은 젊은 고소득 집단에서 자녀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2-6]은 소득분위별 출생아수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대상 전체와 10세 간격별로 제시한 것이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2003년 1.66명, 2006년 1.56명, 2009년 1.44명이며, 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2003년 1.87명, 2006년 1.80명, 2009년 1.78명이다. 25~44세 전체 유배우 여성의 경우 소득과 출산의 정적인 관계가 거의 매년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기울기는 약간 더 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 최은영·박영실(2010)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동안 낳는 총출생아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별로 큰 차이가 없다.



1분위 저소득가구의 평균 출생아수의 하락폭이 5분위 고소득가구보다 큰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이 진행 중인 주출산 연령층인 25~34세 집단에서 더 극명하다. 이 집단의 1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2003년 1.50명이었으나, 2009년 0.96명으로 0.54명 하락하였으나, 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2003년 1.48명에서 2009년 1.30명으로 0.18명 하락하였다. 반면에 35~44세 집단의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의 하락폭은 비슷하였다. 1분위의 경우 2003년과 2009년 사이 1.81명에서 1.73명으로 0.08명, 5분위는 같은 시기 동안 2.07에서 2.00명으로 0.07명 하락하였다.

〈표 2-7〉 소득 5분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5~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	473	1.66	409	1.62	215	1.69	162	1.56	97	1.65	101	1.62	122	1.44
2	944	1.71	839	1.67	838	1.66	687	1.70	548	1.71	542	1.69	510	1.64
3	1,180	1.72	1,038	1.78	1,308	1.76	1,115	1.70	972	1.72	956	1.75	966	1.77
4	1,206	1.79	1,130	1.79	1,525	1.78	1,387	1.82	1,168	1.82	1,179	1.74	1,126	1.74
5	1,180	1.87	1,063	1.86	1,497	1.86	1,320	1.80	1,124	1.80	1,115	1.79	1,093	1.78
전체	4,983	1.76	4,479	1.76	5,383	1.78	4,671	1.76	3,909	1.77	3,893	1.75	3,817	1.7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표 2-8〉 소득 5분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5~29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	69	1.25	69	1.03	33	1.00	24	1.00	11	1.18	14	1.14	18	0.89
2	176	1.18	153	1.14	137	1.09	102	1.25	75	1.15	76	1.14	79	0.94
3	198	1.10	155	1.14	179	1.20	177	1.15	145	1.08	131	0.98	137	1.26
4	163	0.98	144	0.91	177	1.05	146	1.16	122	1.02	137	0.92	132	0.87
5	119	0.83	105	0.89	134	0.90	91	0.87	84	0.80	82	0.80	80	0.76
전체	725	1.06	626	1.03	660	1.06	540	1.12	437	1.02	440	0.96	446	0.9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표 2-9〉 소득 5분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30~3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	158	1.61	104	1.57	64	1.89	40	1.60	24	1.58	25	1.32	27	1.00
2	285	1.69	267	1.63	261	1.67	215	1.66	143	1.57	132	1.53	131	1.42
3	381	1.71	321	1.78	366	1.61	307	1.62	268	1.64	270	1.68	282	1.62
4	371	1.76	314	1.69	461	1.63	412	1.65	286	1.68	326	1.63	296	1.66
5	291	1.74	274	1.71	346	1.70	321	1.60	268	1.54	260	1.51	256	1.46
전체	1,486	1.72	1,280	1.69	1,498	1.66	1,295	1.63	989	1.61	1,013	1.59	992	1.5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표 2-10〉 소득 5분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35~39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	123	1.88	124	1.96	54	1.83	52	1.73	36	1.97	25	1.96	34	1.79
2	268	1.94	218	1.94	236	1.92	196	1.89	178	1.90	189	1.84	164	1.87
3	296	1.96	292	1.98	415	1.99	328	1.92	285	1.91	296	1.94	295	1.92
4	337	2.04	340	2.03	458	1.97	444	1.98	425	1.96	390	1.93	395	1.91
5	368	2.11	307	2.07	504	1.99	456	1.89	375	1.91	403	1.91	379	1.96
전체	1,392	2.01	1,281	2.01	1,667	1.97	1,476	1.92	1,299	1.93	1,303	1.91	1,267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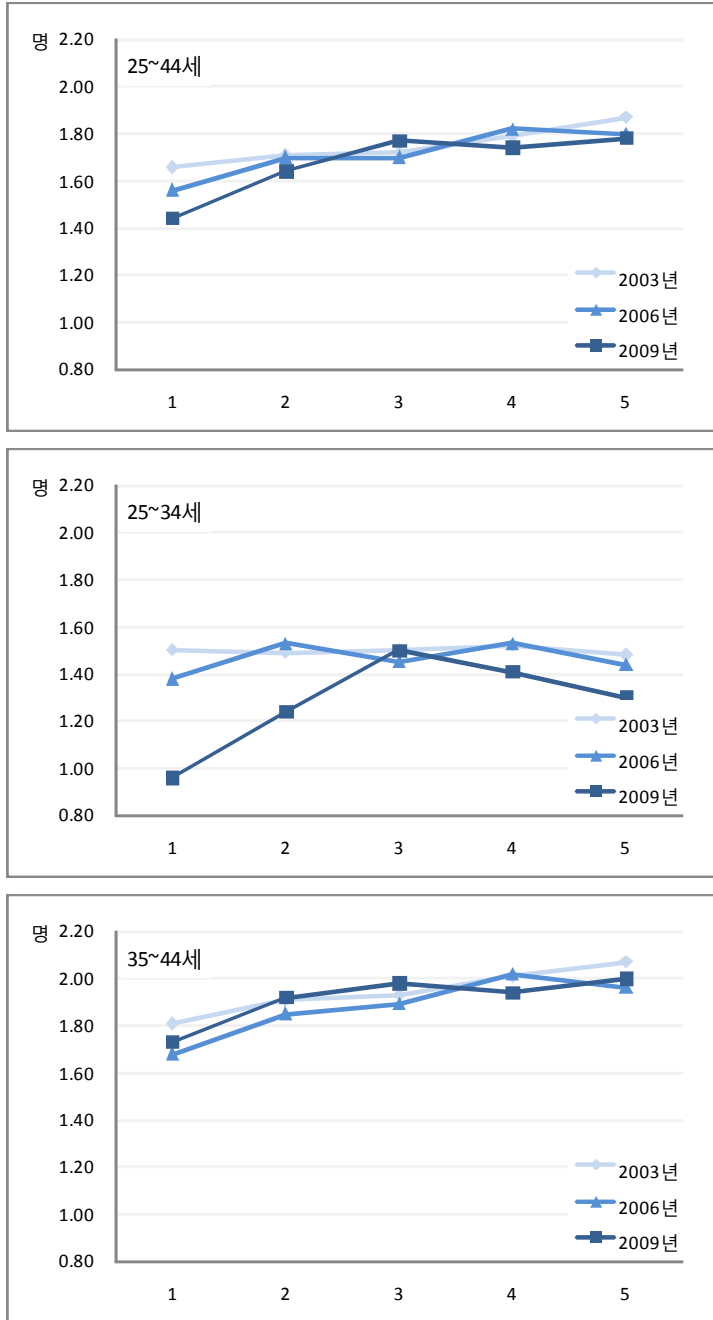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표 2-11〉 소득 5분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40~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	123	1.75	112	1.64	64	1.72	46	1.63	26	1.46	37	1.78	43	1.67
2	215	1.87	201	1.82	204	1.75	174	1.81	152	1.88	145	1.92	136	1.99
3	305	1.89	270	1.95	348	1.92	303	1.85	274	1.95	259	2.02	252	2.06
4	335	1.99	332	2.00	429	2.05	385	2.06	335	2.04	326	1.97	303	1.98
5	402	2.04	377	2.06	513	2.10	452	2.02	397	2.10	370	2.07	378	2.04
전체	1,380	1.94	1,292	1.95	1,558	1.98	1,360	1.95	1,184	2.00	1,137	2.00	1,112	2.0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2-6] 소득 5분위별 유배우 여성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

2) 출생아수 구성 비율

다음으로 소득분위별로 무자녀·한자녀·두자녀·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자녀·한자녀·두자녀·다자녀 가구의 구성 비율이 소득분위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2003년 각 소득분위 내에서 무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25~44세 여성 전체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무자녀 가구 비율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이는데,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표 2-12> ~ <표 2-14>). 25~34세 여성은 1분위 11.9%, 5분위 12.7%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35~44세 여성은 1분위 7.3%, 5분위 1.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자녀 비율 역시 25~44세 여성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관계를 보이는데, 35~44세의 경우 1분위 18.3%, 3분위 14.8%, 5분위 8.4%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두자녀 비율은 무자녀 및 한자녀와 달리 25~44세 여성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두자녀 비율과 소득의 정적인 관계는 25~34세와 35~44세 여성에서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25~34세 여성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두자녀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35~44세 여성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두자녀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과 다자녀 가구의 비율은 선형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관되게 1분위 가구보다 5분위 가구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가구유형과의 이러한 패턴은 몇몇 시점을 제외하고는 2006년과 2009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2-15> ~ <표 2-20>). 무자녀 가구 비율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과 2009년 모두 25~34세 집단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35~44세 집단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무자녀 비율이 낮아졌다. 한자녀의 경우 2006년에는 25~34세, 35~44세 집단 모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데 반해 2009년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자녀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두자녀의 경우, 2006년에는 25~44세, 35~44세 집단에서 2009년은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두자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자녀의 경우, 2003년과 마찬가지로 1분위에 비해 5분위 가구에서 다자녀 비율이 높은 경향이 2006년과 2009년에도 발견되었다.

소득분위별로 무자녀·한자녀·두자녀·다자녀 가구 비율이 2003~2009년 간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2분위 가구와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그림 2-7], [그림 2-8]).¹⁰⁾ 2분위 가구의 25~44세 전체 집단에서 무자녀·한자녀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두자녀

10) 1분위 가구를 자녀수에 따른 가구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특정연도, 세부항목의 사례수가 크지 않아, 2분위 가구로 비교하였다.

〈표 2-12〉 2003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25~44세)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45	9.5	115	24.3	270	57.1	43	9.1	473	100.0
2	93	9.9	208	22.0	537	56.9	106	11.2	944	100.0
3	96	8.1	268	22.7	702	59.5	114	9.7	1,180	100.0
4	81	6.7	239	19.8	744	61.7	142	11.8	1,206	100.0
5	60	5.1	205	17.4	762	64.6	153	13.0	1,180	100.0
전체	375	7.5	1,035	20.8	3,015	60.5	558	11.3	4,983	100.0

〈표 2-13〉 2003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25~34세)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27	11.9	70	30.8	120	52.9	10	4.4	227	100.0
2	65	14.1	135	29.3	232	50.3	29	6.3	461	100.0
3	72	12.4	179	30.9	294	50.8	34	5.9	579	100.0
4	72	13.5	156	29.2	263	49.3	43	8.1	534	100.0
5	52	12.7	140	34.1	190	46.3	28	6.8	410	100.0
전체	288	13.0	680	30.8	1,099	49.7	144	6.5	2,211	100.0

〈표 2-14〉 2003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35~44세)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18	7.3	45	18.3	150	61.0	33	13.4	246	100.0
2	28	5.8	73	15.1	305	63.1	77	15.9	483	100.0
3	24	4.0	89	14.8	408	67.9	80	13.3	601	100.0
4	9	1.3	83	12.4	481	71.6	99	14.7	672	100.0
5	8	1.0	65	8.4	572	74.3	125	16.2	770	100.0
전체	87	3.1	355	12.8	1,916	69.1	414	14.9	2,772	100.0



〈표 2-15〉 2006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25~44세)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24	14.8	39	24.1	84	51.9	15	9.3	162	100.0
2	62	9.0	176	25.6	359	52.3	90	13.1	687	100.0
3	96	8.6	279	25.0	620	55.6	120	10.8	1,115	100.0
4	91	6.6	248	17.9	883	63.7	165	11.9	1,387	100.0
5	76	5.8	262	19.8	847	64.2	135	10.2	1,320	100.0
전체	349	7.5	1,004	21.5	2,793	59.8	525	11.2	4,671	100.0

〈표 2-16〉 2006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25~34세)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11	17.2	21	32.8	29	45.3	3	4.7	64	100.0
2	43	13.6	92	29.0	156	49.2	26	8.2	317	100.0
3	68	14.0	171	35.3	206	42.6	39	8.1	484	100.0
4	66	11.8	167	29.9	297	53.2	28	5.0	558	100.0
5	62	15.0	135	32.8	189	45.9	26	6.3	412	100.0
전체	250	13.6	586	31.9	877	47.8	122	6.6	1,835	100.0

〈표 2-17〉 2006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35~44세)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13	13.3	18	18.4	55	56.1	12	12.2	98	100.0
2	19	5.1	84	22.7	203	54.9	64	17.3	370	100.0
3	28	4.4	108	17.1	414	65.6	81	12.8	631	100.0
4	25	3.0	81	9.8	586	70.7	137	16.5	829	100.0
5	14	1.5	127	14.0	658	72.5	109	12.0	908	100.0
전체	99	3.5	418	14.7	1,916	67.6	403	14.2	2,836	100.0

〈표 2-18〉 2009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25~44세)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24	19.7	33	27.0	55	45.1	10	8.2	122	100.0
2	55	10.8	140	27.5	253	49.6	62	12.2	510	100.0
3	65	6.7	235	24.3	535	55.4	131	13.6	966	100.0
4	86	7.6	264	23.4	643	57.1	133	11.8	1,126	100.0
5	84	7.7	202	18.5	676	61.8	131	12.0	1,093	100.0
전체	314	8.2	874	22.9	2,162	56.6	467	12.2	3,817	100.0

〈표 2-19〉 2009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25~34세)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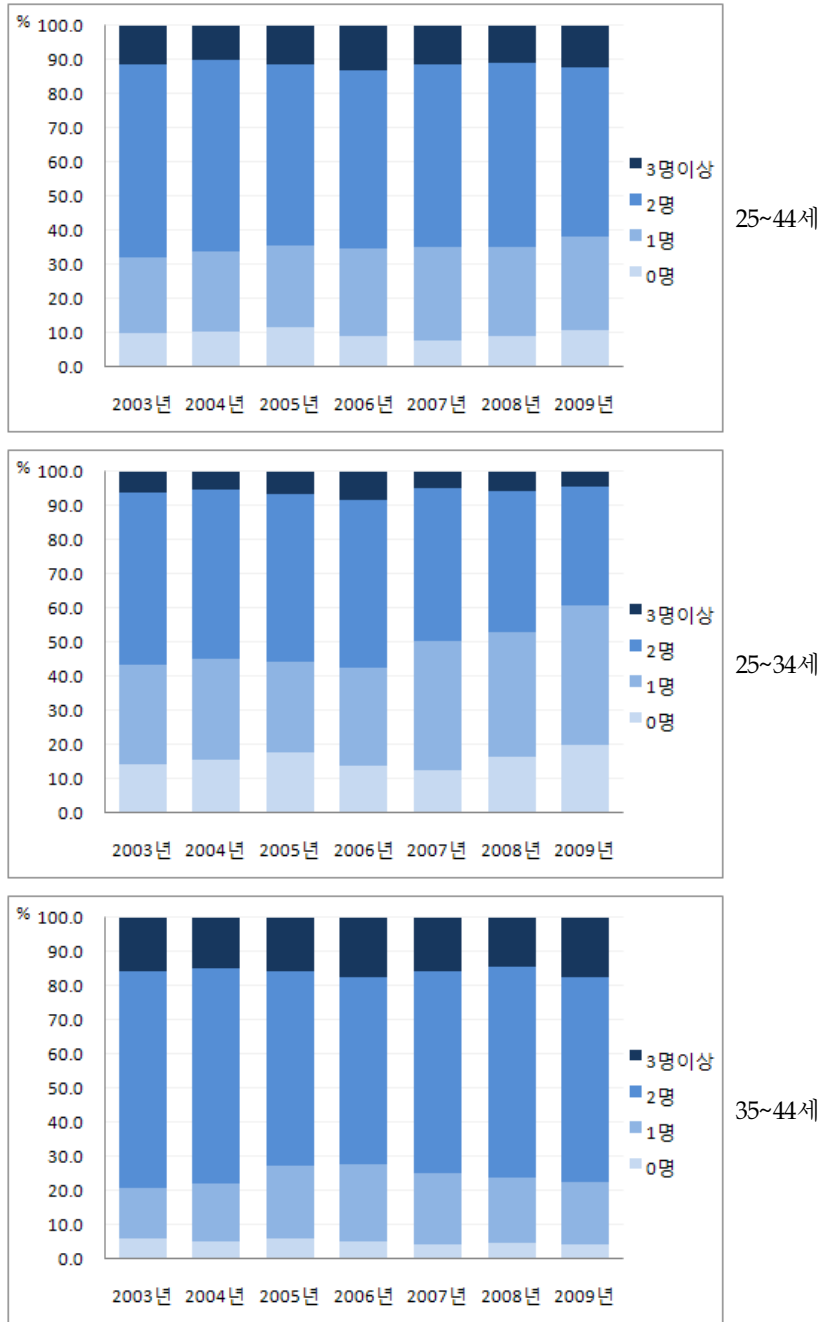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15	33.3	18	40.0	11	24.4	1	2.2	45	100.0
2	42	20.0	86	41.0	73	34.8	9	4.3	210	100.0
3	46	11.0	152	36.3	191	45.6	30	7.2	419	100.0
4	67	15.7	153	35.7	174	40.7	34	7.9	428	100.0
5	72	21.4	107	31.8	142	42.3	15	4.5	336	100.0
전체	242	16.8	516	35.9	591	41.1	89	6.2	1,438	100.0

〈표 2-20〉 2009년 소득 5분위-출생아수별 비율(35~4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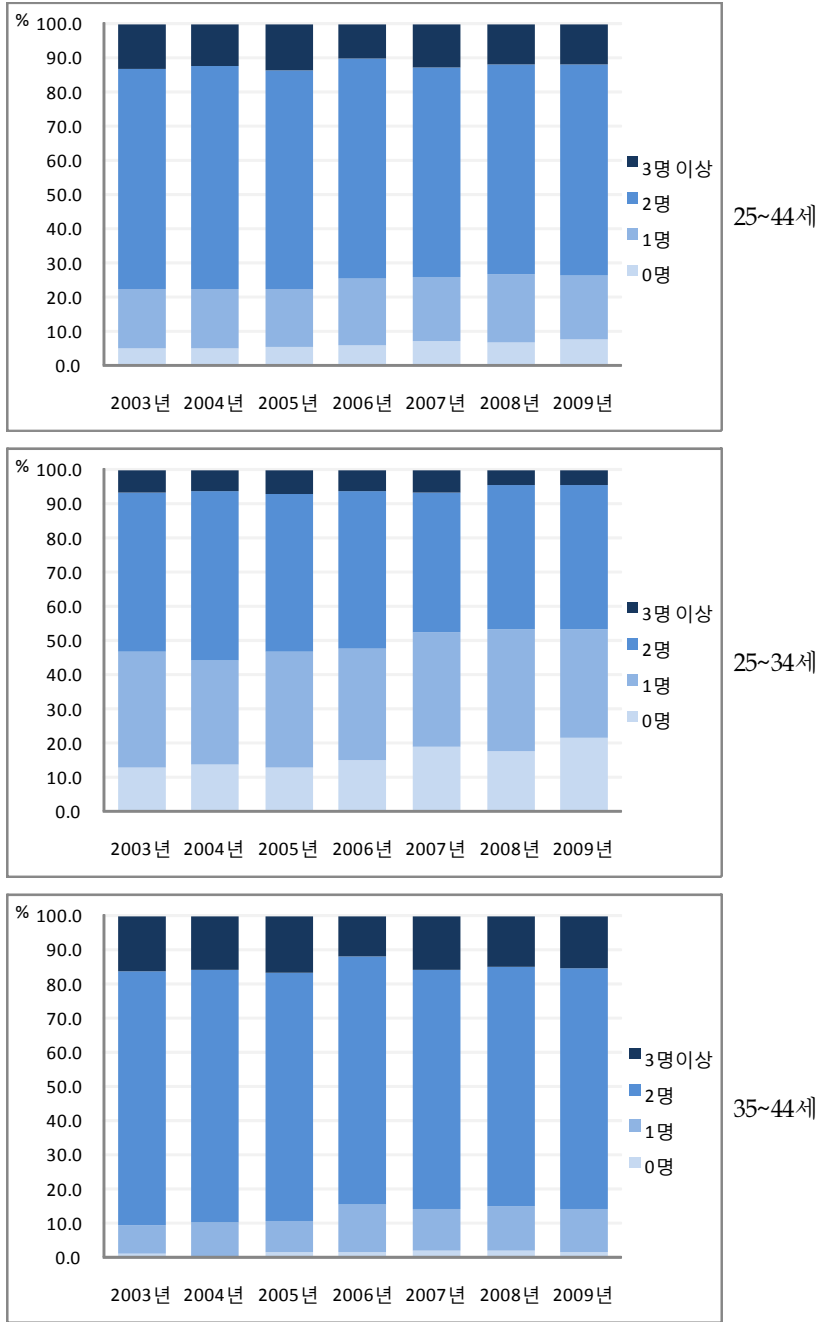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분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전체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9	11.7	15	19.5	44	57.1	9	11.7	77	100.0
2	13	4.3	54	18.0	180	60.0	53	17.7	300	100.0
3	19	3.5	83	15.2	344	62.9	101	18.5	547	100.0
4	19	2.7	111	15.9	469	67.2	99	14.2	698	100.0
5	12	1.6	95	12.5	534	70.5	116	15.3	757	100.0
전체	72	3.0	358	15.0	1,571	66.0	378	15.9	2,379	100.0





[그림 2-7] 연령대별 소득 2분위 가구의 자녀 구성 비율 변화



[그림 2-8] 연령대별 소득 5분위 가구의 자녀 구성 비율 변화

비율은 2003년 56.9%, 2006년 52.3%, 2009년 49.6%로 50%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다자녀 가구 비율은 2003년 11.2%, 2006년 13.1%, 2009년 12.2%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들어가 보면 다소 차별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2분위 가구의 경우, 25~34세 집단에서 무자녀·한자녀 비율은 증가 경향이, 두자녀, 다자녀 비율은 감소 경향이 있었다. 반면, 35~44세 집단에서는 시점에 따라서 무자녀·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분위 가구의 두자녀 비율 감소가 출산이 진행중인 25~34세 집단에서 현저하다는 것이다.

한편, 5분위 가구의 경우, 25~44세의 경우 무자녀·한자녀 비율은 약간 증가, 두자녀·다자녀 비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25~34세 집단의 경우 무자녀 비율은 2003년 12.7%에서 2006년 15.0%, 그리고 2009년 21.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자녀·두자녀·다자녀 가구 비율은 각각 2003년과 2009년 사이 각각 2.3%p, 4%p, 2.3%p 하락하였다. 35~44세 집단의 경우 무자녀·다자녀 가구 비율은 시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자녀 비율은 증가, 두자녀 비율은 감소하였다. 2분위 가구에 비해 5분위 가구는 시계열적으로 자녀수 구성비의 변화가 크지 않다.

나. 소득 구간별 평균 출생아수

다음으로 소득 구간별로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를 연령대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25~44세 전체 집단을 살펴본 결과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평균 출생아수가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적었으며,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연도에서 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 평균보다 적었으며, 그 이상 소득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 평균보다 일관되게 많았다. 그러나, 소득 5분위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세부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체 집단과 차별적인 모습이 발견된다(<표 2-21> ~ <표 2-25>). 25~29세 집단에서 300만원 미만 소득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많은 출생아수를, 300만원 이상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적은 출생아수를 보이고 있어 전체 집단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0~34세 집단은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가구에서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이 관찰되나 그 양상이 연도별로 혼재되어 있어 일관된 패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35~39세, 40~44세 집단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모양으로 바뀐다. 35~39세 집단의 경우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집단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출생아수가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40~44세 집단에서도 나타났으며 이 집단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

〈표 2-21〉 소득 구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5~44세)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00만원 미만	220	1.62	156	1.57	181	1.71	135	1.54	71	1.56	64	1.50	70	1.47
100~200만원	1,225	1.71	1,001	1.65	1,048	1.68	817	1.71	551	1.72	450	1.72	405	1.57
200~300만원	1,709	1.73	1,398	1.78	1,628	1.76	1,281	1.72	1,059	1.73	994	1.73	954	1.77
300~400만원	1,005	1.84	974	1.79	1,204	1.79	1,101	1.82	960	1.82	944	1.75	954	1.75
400~500만원	492	1.85	519	1.84	682	1.83	657	1.79	562	1.74	657	1.78	659	1.76
500만원 이상	332	1.89	431	1.89	640	1.91	680	1.80	706	1.84	784	1.77	775	1.79
전체	4,983	1.76	4,479	1.76	5,383	1.78	4,671	1.76	3,909	1.77	3,893	1.75	3,817	1.74

〈표 2-22〉 소득 구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5~29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00만원 미만	28	1.32	22	1.23	27	0.96	21	1.05	8	1.13	7	1.00	10	0.90
100~200만원	219	1.18	183	1.07	171	1.12	127	1.20	73	1.18	64	1.16	74	0.86
200~300만원	279	1.06	209	1.15	216	1.14	188	1.19	158	1.06	142	1.01	129	1.26
300~400만원	123	0.92	124	0.82	132	1.03	111	1.13	97	1.03	116	0.91	120	0.99
400~500만원	52	0.77	57	0.93	72	0.89	48	0.88	61	0.93	57	0.86	56	0.73
500만원 이상	24	1.04	31	0.87	42	0.86	45	0.87	40	0.70	54	0.83	57	0.77
전체	725	1.06	626	1.03	660	1.06	540	1.12	437	1.02	440	0.96	446	0.98

〈표 2-23〉 소득 구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30~3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00만원 미만	74	1.58	37	1.43	51	1.88	35	1.60	16	1.38	16	1.31	18	1.06
100~200만원	388	1.68	300	1.63	328	1.69	251	1.67	145	1.60	114	1.53	87	1.28
200~300만원	534	1.72	443	1.74	460	1.60	362	1.64	281	1.65	274	1.67	280	1.63
300~400만원	289	1.79	258	1.70	354	1.65	321	1.63	237	1.68	264	1.63	258	1.64
400~500만원	128	1.75	130	1.68	165	1.72	178	1.61	150	1.55	160	1.62	172	1.57
500만원 이상	73	1.67	112	1.75	140	1.66	148	1.59	160	1.54	185	1.46	177	1.46
전체	1,486	1.72	1,280	1.69	1,498	1.66	1,295	1.63	989	1.61	1,013	1.59	992	1.55



〈표 2-24〉 소득 구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35~39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00만원 미만	53	1.66	41	1.93	45	1.93	47	1.77	27	1.93	14	1.57	19	1.79
100~200만원	341	1.96	276	1.94	291	1.91	225	1.90	181	1.91	158	1.94	126	1.87
200~300만원	450	2.00	393	1.98	513	1.98	387	1.91	314	1.92	307	1.88	296	1.92
300~400만원	289	2.07	295	2.07	380	1.98	357	1.99	356	1.97	308	1.94	326	1.91
400~500만원	156	2.08	162	2.07	231	1.96	222	1.91	179	1.86	232	1.91	234	1.94
500만원 이상	103	2.12	114	2.02	207	2.02	238	1.88	242	1.95	284	1.92	266	1.94
전체	1,392	2.01	1,281	2.01	1,667	1.97	1,476	1.92	1,299	1.93	1,303	1.91	1,267	1.92

〈표 2-25〉 소득 구간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40~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가구 수	출생아수
100만원 미만	65	1.75	56	1.54	58	1.74	32	1.47	20	1.40	27	1.70	23	1.78
100~200만원	277	1.84	242	1.79	258	1.78	214	1.86	152	1.86	114	1.92	118	1.92
200~300만원	446	1.91	353	1.96	439	1.96	344	1.88	306	1.96	271	2.00	249	2.02
300~400만원	304	2.05	297	2.00	338	2.02	312	2.05	270	2.03	256	2.02	250	2.00
400~500만원	156	2.04	170	2.05	214	2.10	209	2.01	172	2.08	208	2.03	197	2.01
500만원 이상	132	1.99	174	2.07	251	2.13	249	2.03	264	2.10	261	2.02	275	2.05
전체	1,380	1.94	1,292	1.95	1,558	1.98	1,360	1.95	1,184	2.00	1,137	2.00	1,112	2.01

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 출산력

소득과 함께 취업상태 또한 출산력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공선영, 2006; 김사현, 2009 등). 여기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과 경제활동상태별로 평균 출생아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 맞벌이 여부

먼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26>). 25~44세 전체로 볼 때 맞벌이가 아닌 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평균 출생



아수에서 맞벌이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를 뺀 차이가 2003년 0.06명, 2006년 0.02명, 2009년 0.0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25~44세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적은 것은 25~34세와 35~44세에서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2-27>, <표 2-28>). 25~34세 집단에서는 맞벌이 여부에 의한 차이가 35~44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 그 차이가 2003년 0.08명, 2006년 0.20명, 2009년 0.28명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았다. 35~44세 집단에서 그 차이는 동일 년도에 -0.03명, -0.05명, -0.04명으로 맞벌이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았다.

동일한 소득분위 내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비교해 보면 25~44세 전체 여성 집단의 경우 소득 1·2·3분위 가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은 반면에 소득 4·5분위 가구에서는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3년, 2006년, 2009년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25~34세, 35~44세 집단에서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26>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25~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맞벌이 아님		맞벌이		맞벌이 아님		맞벌이		맞벌이 아님		맞벌이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60	360	1.85	113	1.60	141	1.29	21	1.33	98	1.92	24
2	1.69	600	1.74	344	1.68	486	1.76	201	1.59	367	1.78	143
3	1.68	625	1.77	555	1.66	647	1.74	468	1.74	555	1.82	411
4	1.78	625	1.81	581	1.82	757	1.82	630	1.78	527	1.70	599
5	1.91	512	1.84	668	1.85	527	1.76	793	1.89	412	1.72	681
전체	1.74	2,722	1.80	2,261	1.75	2,558	1.77	2,113	1.73	1,959	1.74	1,85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2-27>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25~3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맞벌이 아님		맞벌이		맞벌이 아님		맞벌이		맞벌이 아님		맞벌이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46	194	1.70	33	1.41	56	1.13	8	0.93	40	1.20	5
2	1.51	338	1.46	123	1.54	254	1.46	63	1.27	176	1.06	34
3	1.53	377	1.46	202	1.50	343	1.33	141	1.55	309	1.36	110
4	1.55	330	1.47	204	1.60	355	1.40	203	1.57	224	1.25	204
5	1.62	177	1.37	233	1.65	155	1.31	257	1.61	127	1.11	209
전체	1.53	1,416	1.45	795	1.55	1,163	1.35	672	1.48	876	1.20	56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2-28>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35~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맞벌이 아님		맞벌이		맞벌이 아님		맞벌이		맞벌이 아님		맞벌이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77	166	1.91	80	1.73	85	1.38	13	1.60	58	2.11	19
2	1.93	262	1.89	221	1.83	232	1.89	138	1.87	191	2.01	109
3	1.90	248	1.95	353	1.85	304	1.92	327	1.97	246	1.99	301
4	2.03	295	1.99	377	2.01	402	2.02	427	1.94	303	1.94	395
5	2.06	335	2.08	435	1.93	372	1.98	536	2.02	285	1.99	472
전체	1.96	1,306	1.99	1,466	1.91	1,395	1.96	1,441	1.94	1,083	1.98	1,29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편, 소득 5분위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29> ~ <표 2-37>).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연령집단에 따라 달랐는데, 25~44세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25~34세 집단의 경우 맞벌이 여부, 마지막으로 35~44세 집단의 경우는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로, 25~34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표 2-29> 2003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21.137	4	5.284	8.840	0.000
맞벌이 여부	1.766	1	1.766	2.960	0.086
모델	25.665	5	5.133	8.590	0.000
잔차	2,974.681	4,977	0.598		
전체	3,000.346	4,982	0.602		

<표 2-30> 2006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9.250	4	4.812	8.130	0.000
맞벌이 여부	0.000	1	0.000	0.000	0.993
모델	19.854	5	3.971	6.710	0.000
잔차	2,761.354	4,665	0.592		
전체	2,781.208	4,670	0.596		



〈표 2-31〉 2009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9.272	4	4.818	7.470	0.000
맞벌이 여부	0.263	1	0.263	0.410	0.523
모델	19.384	5	3.877	6.010	0.000
잔차	2,458.243	3,811	0.645		
전체	2,477.627	3,816	0.649		

〈표 2-32〉 2003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0.516	4	0.129	0.200	0.940
맞벌이 여부	3.898	1	3.898	5.930	0.015
모델	4.388	5	0.878	1.340	0.246
잔차	1,448.359	2,205	0.657		
전체	1,452.747	2,210	0.657		

〈표 2-33〉 2006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3.817	4	0.954	1.420	0.224
맞벌이 여부	17.080	1	17.080	25.450	0.000
모델	20.780	5	4.156	6.190	0.000
잔차	1,227.283	1,829	0.671		
전체	1,248.063	1,834	0.681		

〈표 2-34〉 2009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25.343	4	6.336	9.210	0.000
맞벌이 여부	29.996	1	29.996	43.620	0.000
모델	51.417	5	10.283	14.950	0.000
잔차	984.795	1,432	0.688		
전체	1,036.211	1,437	0.721		

〈표 2-35〉 2003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7.721	4	4.430	9.780	0.000
맞벌이 여부	0.103	1	0.103	0.230	0.633
모델	18.329	5	3.666	8.090	0.000
잔차	1,252.953	2,766	0.453		
전체	1,271.282	2,771	0.459		

〈표 2-36〉 2006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5.127	4	3.782	8.330	0.000
맞벌이 여부	0.861	1	0.861	1.900	0.169
모델	17.325	5	3.465	7.630	0.000
잔차	1,284.995	2,830	0.454		
전체	1,302.320	2,835	0.459		

〈표 2-37〉 2009년 소득 5분위-맞벌이 여부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5.730	4	1.432	3.020	0.017
맞벌이 여부	0.348	1	0.348	0.730	0.392
모델	6.679	5	1.336	2.820	0.015
잔차	1,124.685	2,373	0.474		
전체	1,131.364	2,378	0.476		

나.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5~34세 집단과 35~44세 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2-38〉 ~ 〈표 2-40〉). 25~34세 집단에서는 취업자보다 비경활·실업자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은 반면, 35~44세 집단에서는 그 반대로 취업자인 경우가 비경활·실업자보다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25~34세 집단의 경우 두 집단 간의 평균 출생아수 차이는 2003년(-0.11명), 2006년(-0.19명), 2009년(-0.29명)으로 갈 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35~44세 집단은 그 차이가 근소하였다.

동일한 소득분위 내에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패턴을 살펴보면, 25~44세의 경우 1·2·3분위 가구에서는 대체로 취업자가 비경활·실업자에 비해 평균 출생아수가 많지만, 4·5분위 가구에서는 그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25~34세의 경우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자보다 실업 및 비경활자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일부



소득분위에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다른 소득분위에서의 차이에 비해 근소한 것이었다. 한편, 35~44세에서는 그 경향성이 일관되지 않았다.

〈표 2-38〉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5~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79	115	1.61	217	1.47	30	1.64	73	1.77	35	1.18	60
2	1.73	299	1.73	421	1.80	184	1.65	309	1.73	143	1.63	266
3	1.77	472	1.67	464	1.74	393	1.63	414	1.82	351	1.71	431
4	1.86	494	1.80	468	1.81	499	1.85	496	1.69	496	1.79	417
5	1.85	562	1.94	376	1.77	577	1.85	341	1.70	563	1.86	314
전체	1.81	1,942	1.76	1,946	1.78	1,683	1.75	1,633	1.73	1,588	1.73	1,488

〈표 2-39〉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5~3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63	38	1.46	125	0.90	10	1.39	31	1.00	7	0.93	27
2	1.43	112	1.59	251	1.59	61	1.57	171	1.09	32	1.32	138
3	1.44	171	1.55	287	1.32	114	1.48	232	1.42	110	1.53	245
4	1.52	163	1.58	255	1.39	170	1.63	230	1.19	170	1.57	174
5	1.38	192	1.60	123	1.32	190	1.59	101	1.08	181	1.56	102
전체	1.45	676	1.56	1,041	1.37	545	1.56	765	1.19	500	1.48	686

〈표 2-40〉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35~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실업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87	77	1.83	92	1.75	20	1.83	42	1.96	28	1.39	33
2	1.90	187	1.94	170	1.91	123	1.75	138	1.92	111	1.97	128
3	1.95	301	1.86	177	1.91	279	1.82	182	2.00	241	1.95	186
4	2.03	331	2.06	213	2.03	329	2.04	266	1.95	326	1.95	243
5	2.09	370	2.10	253	2.00	387	1.95	240	1.99	382	2.01	212
전체	2.00	1,266	1.99	905	1.97	1,138	1.92	868	1.97	1,088	1.95	802

소득 5분위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변수가 25~44세 집단의 경우 소득분위 변수인데 반해, 25~34세 집단에서는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만 소득분위에 따른 유의미성은 시점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았다. 한편, 35~44세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체와 동일해, 전반적으로 소득이 평균 출생아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41> ~ <표 2-49>).

<표 2-41> 2003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20.029	4	5.007	8.61	0.000
경제활동상태	0.976	1	0.976	1.68	0.195
모델	22.506	5	4.501	7.74	0.000
잔차	2,257.445	3,882	0.582		
전체	2,279.950	3,887	0.587		

<표 2-42> 2006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4.680	4	3.670	6.12	0.000
경제활동상태	0.140	1	0.140	0.23	0.629
모델	15.315	5	3.063	5.11	0.000
잔차	1,983.428	3,310	0.599		
전체	1,998.743	3,315	0.603		

<표 2-43> 2009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3.412	4	3.353	5.14	0.000
경제활동상태	0.241	1	0.241	0.37	0.544
모델	13.423	5	2.685	4.12	0.001
잔차	2,001.823	3,070	0.652		
전체	2,015.247	3,075	0.655		



〈표 2-44〉 2003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075	4	0.269	0.42	0.796
경제활동상태	4.416	1	4.416	6.85	0.009
모델	6.018	5	1.204	1.87	0.097
잔차	1,102.690	1,711	0.644		
전체	1,108.708	1,716	0.646		

〈표 2-45〉 2006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6.248	4	1.562	2.26	0.061
경제활동상태	10.892	1	10.892	15.73	0.000
모델	18.107	5	3.621	5.23	0.000
잔차	902.751	1,304	0.692		
전체	920.858	1,309	0.703		

〈표 2-46〉 2009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6.687	4	4.172	5.99	0.000
경제활동상태	23.374	1	23.374	33.55	0.000
모델	40.365	5	8.073	11.59	0.000
잔차	822.053	1,180	0.697		
전체	862.418	1,185	0.728		

〈표 2-47〉 2003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5.904	4	3.976	9.19	0.000
경제활동상태	0.018	1	0.018	0.04	0.839
모델	16.008	5	3.202	7.40	0.000
잔차	936.936	2,165	0.433		
전체	952.944	2,170	0.439		

<표 2-48> 2006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2.038	4	3.009	6.77	0.000
경제활동상태	1.167	1	1.167	2.63	0.105
모델	13.630	5	2.726	6.13	0.000
잔차	888.978	2,000	0.444		
전체	902.608	2,005	0.450		

<표 2-49> 2009년 소득 5분위-여성경제활동상태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6.418	4	1.604	3.43	0.008
경제활동상태	0.151	1	0.151	0.32	0.570
모델	6.739	5	1.348	2.88	0.014
잔차	881.285	1,884	0.468		
전체	888.024	1,889	0.470		

다. 자가거주 여부

소득 5분위 및 자가거주 여부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 3분위 가구(35~44세)를 제외하면 모든 소득분위 내,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표 2-50> ~ <표 2-53>).

<표 2-50>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25~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59	328	1.83	145	1.43	99	1.76	63	1.30	61	1.50	36
2	1.58	527	1.86	417	1.64	413	1.80	274	1.59	237	1.78	172
3	1.60	585	1.83	595	1.58	598	1.83	517	1.71	375	1.80	407
4	1.66	518	1.89	688	1.68	565	1.91	822	1.55	370	1.86	543
5	1.70	433	1.97	747	1.61	472	1.90	848	1.59	318	1.85	559
전체	1.63	2,391	1.89	2,592	1.62	2,147	1.87	2,524	1.60	1,361	1.83	1,717

〈표 2-51〉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25~3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44	169	1.66	58	1.35	48	1.44	16	0.83	23	1.00	13
2	1.43	313	1.62	148	1.50	214	1.59	103	1.17	108	1.47	62
3	1.40	325	1.63	254	1.39	307	1.54	177	1.43	194	1.58	161
4	1.42	293	1.65	241	1.48	308	1.58	250	1.23	185	1.56	159
5	1.36	221	1.62	189	1.38	209	1.50	203	1.13	142	1.38	141
전체	1.41	1,321	1.63	890	1.43	1,086	1.55	749	1.24	652	1.49	536

〈표 2-52〉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35~44세)

(단위: 가구, 명)

구분	2003년				2006년				2009년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자가거주아님		자가거주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평균	가구수
1	1.74	159	1.95	87	1.51	51	1.87	47	1.58	38	1.78	23
2	1.80	214	2.00	269	1.79	199	1.92	171	1.94	129	1.95	110
3	1.85	260	1.98	341	1.78	291	1.97	340	2.01	181	1.95	246
4	1.99	225	2.02	447	1.93	257	2.06	572	1.88	185	1.99	384
5	2.05	212	2.08	558	1.80	263	2.02	645	1.95	176	2.01	418
전체	1.89	1,070	2.03	1,702	1.81	1,061	2.01	1,775	1.93	709	1.98	1,181

소득 5분위 그리고 자가거주 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53〉 ~ 〈표 2-61〉). 25~44세 집단에 대한 이원분산 결과를 보면, 95% 신뢰수준에서 소득분위와 자가거주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25~34세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소득분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자가거주 여부는 유의미하였다. 35~44세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소득분위와 자가거주 여부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변수만 유의미하였다.



〈표 2-53〉 2003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1.030	4	2.758	4.73	0.001
자가거주 여부	74.498	1	74.498	127.77	0.000
모델	98.398	5	19.680	33.75	0.000
잔차	2,901.948	4,977	0.583		
총	3,000.346	4,982	0.602		

〈표 2-54〉 2006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9.944	4	2.486	4.30	0.002
자가거주 여부	65.257	1	65.257	112.91	0.000
모델	85.111	5	17.022	29.45	0.000
잔차	2,696.097	4,665	0.578		
총	2,781.208	4,670	0.596		

〈표 2-55〉 2009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1.217	4	2.804	4.37	0.002
자가거주 여부	36.306	1	36.306	56.63	0.000
모델	51.617	5	10.323	16.10	0.000
잔차	1,969.597	3,072	0.641		
총	2,021.214	3,077	0.657		

〈표 2-56〉 2003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0.878	4	0.220	0.34	0.851
자가거주 여부	27.017	1	27.017	41.80	0.000
모델	27.506	5	5.501	8.51	0.000
잔차	1,425.241	2,205	0.646		
총	1,452.747	2,210	0.657		



〈표 2-57〉 2006년 소득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3.805	4	0.951	1.41	0.230
자가거주 여부	6.202	1	6.202	9.16	0.003
모델	9.902	5	1.980	2.93	0.012
잔차	1,238.161	1,829	0.677		
총	1,248.063	1,834	0.681		

〈표 2-58〉 2009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25~3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8.369	4	4.592	6.55	0.000
자가거주 여부	17.788	1	17.788	25.35	0.000
모델	36.785	5	7.357	10.49	0.000
잔차	829.313	1,182	0.702		
총	866.098	1,187	0.730		

〈표 2-59〉 2003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3.193	4	3.298	7.32	0.000
자가거주 여부	6.586	1	6.586	14.61	0.000
모델	24.811	5	4.962	11.01	0.000
잔차	1,246.471	2,766	0.451		
총	1,271.282	2,771	0.459		

〈표 2-60〉 2006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10.769	4	2.692	6.02	0.000
자가거주 여부	20.907	1	20.907	46.77	0.000
모델	37.371	5	7.474	16.72	0.000
잔차	1,264.950	2,830	0.447		
총	1,302.320	2,835	0.459		

〈표 2-61〉 2009년 소득 5분위-자가거주 여부별 이원분산분석(35~44세)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소득 5분위	6.009	4	1.502	3.21	0.012
자가거주 여부	0.817	1	0.817	1.75	0.186
모델	7.405	5	1.481	3.17	0.008
잔차	880.619	1,884	0.467		
총	888.024	1,889	0.470		

3.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여기에서는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무자녀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한자녀·두자녀·세자녀 이상 출산 확률에 소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득의 경우, 남성 소득과 여성 소득을 구분하였으며, 연령과 교육수준, 남성의 교육수준, 자가소유 여부를 통제하였다.

<표 2-62>는 2003년의 25~44세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로 무자녀 집단에 비해 한자녀 출산 확률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남성은 정적인 소득 효과가, 여성은 부적인 소득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무자녀 집단에 비해 두자녀 및 세자녀 출산 확률에는 남성의 소득만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에 남성 소득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소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자가거주 여부가 일관되게 한자녀·두자녀·다자녀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그 영향력은 다자녀로 갈 수록 더 증가하였다. 그런데, 분석대상 집단을 좀 더 세분화할 경우, 남성과 여성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출산이 진행 중인 25~34세 집단에서는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모형 모두에서 여성 소득의 부적효과와 남성 소득의 정적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난 반면, 35~44세 집단에서는 남성 소득과 여성 소득 모두 정적효과가 나타났다. 여성 소득의 경우 한자녀 모형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그 방향성은 다른 모형과 마찬가지로 정적이었다(<표 2-63> ~ <표 2-64>).

2009년의 25~44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항로짓 분석결과, 무자녀 집단에 비해 한자녀 출산 확률에 남성 소득의 정적 효과와 여성 소득의 부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자녀·다자녀 확률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표 2-65>). 25~34세 집단에서는 2003년과 다르게, 여성 소득의 부적인 효과는 한자녀·두자녀·다자녀 출산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남성 소득의 정적인 효과는 다자녀 모형에서만 유의미하였다(<표 2-66>). 35~44세 집단에서는 무자녀 집단에 비해 두자녀 출산 확률에서만 남성 소득의 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나머지 모형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부적이다(<표 2-67>).

25~44세 유배우 여성의 출산 확률에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후 소득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 소득의 정적인 효과와 여성 소득의 부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무자녀에 비해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증가하여 소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무자녀에 비해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소득은 소득 효과보다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2-62〉 소득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기계동향 2003년(25~44세)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남성 소득	0.090	0.017	1.094	0.000
	여성 소득	-0.042	0.015	0.959	0.006
	자가거주	0.562	0.137	1.754	0.000
	여성연령	0.122	0.015	1.130	0.000
	여성고졸	0.189	0.312	1.208	0.544
	여성대졸	0.265	0.340	1.304	0.435
	여성대학원졸	0.534	0.441	1.705	0.226
	남성고졸	0.344	0.310	1.410	0.268
	남성대졸	-0.017	0.354	0.984	0.963
	남성대학원졸	-1.380	0.561	0.252	0.014
상수	-4.307	0.669		0.000	
두자녀	남성 소득	0.089	0.015	1.093	0.000
	여성 소득	-0.016	0.015	0.984	0.274
	자가거주	0.832	0.130	2.298	0.000
	여성연령	0.247	0.015	1.280	0.000
	여성고졸	0.630	0.295	1.878	0.033
	여성대졸	0.641	0.322	1.899	0.047
	여성대학원졸	0.577	0.424	1.780	0.174
	남성고졸	0.385	0.292	1.470	0.187
	남성대졸	-0.336	0.334	0.715	0.315
	남성대학원졸	-1.514	0.504	0.220	0.003
상수	-8.322	0.643		0.000	
다자녀	남성 소득	0.141	0.025	1.152	0.000
	여성 소득	-0.032	0.018	0.969	0.075
	자가거주	0.906	0.154	2.474	0.000
	여성연령	0.280	0.017	1.323	0.000
	여성고졸	0.453	0.327	1.572	0.166
	여성대졸	0.245	0.366	1.277	0.503
	여성대학원졸	0.800	0.484	2.226	0.098
	남성고졸	0.195	0.320	1.216	0.542
	남성대졸	-0.492	0.384	0.611	0.200
	남성대학원졸	-1.620	0.681	0.198	0.017
상수	-11.512	0.799		0.000	

주: 더미변수에 대한 참조집단은 종속변수의 경우, 무자녀 집단, 독립변수의 경우 각각 자가거주가 아닌 경우, 여성중졸, 남성중졸임.



〈표 2-63〉 소득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기계동향 2003년(25~3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남성 소득	0.063	0.023	1.065	0.006
	여성 소득	-0.075	0.020	0.928	0.000
	자가거주	0.541	0.166	1.718	0.001
	여성연령	0.263	0.031	1.301	0.000
	여성고졸	0.559	0.572	1.750	0.328
	여성대졸	0.618	0.590	1.855	0.295
	여성대학원졸	0.776	0.673	2.173	0.249
	남성고졸	0.485	0.547	1.625	0.375
	남성대졸	0.033	0.580	1.033	0.955
	남성대학원졸	-1.780	0.764	0.169	0.020
상수	-7.979	1.135		0.000	
두자녀	남성 소득	0.055	0.023	1.057	0.015
	여성 소득	-0.080	0.020	0.923	0.000
	자가거주	0.852	0.165	2.343	0.000
	여성연령	0.498	0.032	1.645	0.000
	여성고졸	0.266	0.528	1.305	0.615
	여성대졸	-0.145	0.549	0.865	0.792
	여성대학원졸	-0.391	0.653	0.676	0.549
	남성고졸	0.575	0.520	1.777	0.269
	남성대졸	-0.288	0.558	0.749	0.605
	남성대학원졸	-2.786	0.859	0.062	0.001
상수	-14.210	1.147		0.000	
다자녀	남성 소득	0.108	0.047	1.114	0.022
	여성 소득	-0.067	0.029	0.936	0.021
	자가거주	0.835	0.234	2.304	0.000
	여성연령	0.710	0.056	2.034	0.000
	여성고졸	-0.237	0.620	0.789	0.703
	여성대졸	-1.161	0.671	0.313	0.084
	여성대학원졸	-0.653	0.817	0.521	0.424
	남성고졸	-0.136	0.616	0.873	0.826
	남성대졸	-0.522	0.693	0.593	0.451
	남성대학원졸	-1.492	1.036	0.225	0.150
상수	-22.703	2.006		0.000	

주: 더미변수에 대한 참조집단은 종속변수의 경우, 무자녀 집단, 독립변수의 경우 각각 자가거주가 아닌 경우, 여성중졸, 남성중졸임.

〈표 2-64〉 소득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기계동향 2003년(35~4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남성 소득	0.114	0.027	1.120	0.000
	여성 소득	0.031	0.025	1.032	0.213
	자가거주	0.899	0.258	2.456	0.000
	여성연령	0.061	0.043	1.063	0.158
	여성고졸	-0.010	0.387	0.990	0.979
	여성대졸	0.218	0.529	1.244	0.680
	여성대학원졸	0.149	0.813	1.161	0.854
	남성고졸	0.064	0.391	1.066	0.869
	남성대졸	0.094	0.586	1.098	0.873
	남성대학원졸	11.191	365.181	72,477.490	0.976
상수	-3.266	1.825		0.074	
두자녀	남성 소득	0.117	0.022	1.124	0.000
	여성 소득	0.089	0.023	1.094	0.000
	자가거주	1.182	0.240	3.262	0.000
	여성연령	0.001	0.040	1.001	0.981
	여성고졸	0.552	0.360	1.737	0.125
	여성대졸	1.413	0.492	4.106	0.004
	여성대학원졸	0.987	0.761	2.682	0.195
	남성고졸	-0.287	0.361	0.751	0.427
	남성대졸	-0.805	0.545	0.447	0.139
	남성대학원졸	10.490	365.180	35,952.690	0.977
상수	-0.258	1.671		0.877	
다자녀	남성 소득	0.166	0.031	1.180	0.000
	여성 소득	0.058	0.025	1.059	0.024
	자가거주	1.302	0.257	3.676	0.000
	여성연령	-0.028	0.043	0.972	0.511
	여성고졸	0.436	0.389	1.546	0.263
	여성대졸	1.132	0.526	3.102	0.031
	여성대학원졸	1.359	0.802	3.893	0.090
	남성고졸	-0.475	0.387	0.622	0.220
	남성대졸	-1.192	0.585	0.304	0.042
	남성대학원졸	9.717	365.181	16,594.000	0.979
상수	-0.772	1.821		0.672	

주: 더미변수에 대한 참조집단은 종속변수의 경우, 무자녀 집단, 독립변수의 경우 각각 자가거주가 아닌 경우, 여성중졸, 남성중졸임.

〈표 2-65〉 소득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기계동향 2009년(25~4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자가거주	0.509	0.143	1.664	0.000
	여성연령	0.127	0.016	1.135	0.000
	남성 소득	0.039	0.016	1.040	0.014
	여성 소득	-0.059	0.010	0.943	0.000
	여성고졸	0.388	0.449	1.474	0.387
	여성대졸	0.409	0.470	1.505	0.385
	여성대학원졸	-0.039	0.534	0.962	0.942
	남성고졸	0.599	0.402	1.821	0.136
	남성대졸	0.553	0.431	1.738	0.200
	남성대학원졸	0.556	0.579	1.743	0.337
	상수	-4.323	0.759		0.000
두자녀	자가거주	0.760	0.138	2.139	0.000
	여성연령	0.282	0.016	1.326	0.000
	남성 소득	0.045	0.015	1.046	0.004
	여성 소득	-0.059	0.010	0.943	0.000
	여성고졸	0.274	0.421	1.315	0.515
	여성대졸	0.273	0.442	1.314	0.536
	여성대학원졸	-0.032	0.505	0.969	0.950
	남성고졸	1.168	0.391	3.215	0.003
	남성대졸	0.699	0.421	2.012	0.097
	남성대학원졸	0.492	0.570	1.636	0.388
	상수	-9.477	0.745		0.000
다자녀	자가거주	0.801	0.165	2.228	0.000
	여성연령	0.330	0.019	1.391	0.000
	남성 소득	0.055	0.019	1.056	0.004
	여성 소득	-0.067	0.012	0.936	0.000
	여성고졸	0.368	0.464	1.444	0.429
	여성대졸	0.042	0.494	1.043	0.932
	여성대학원졸	-0.111	0.601	0.895	0.854
	남성고졸	0.774	0.432	2.167	0.073
	남성대졸	-0.488	0.486	0.614	0.316
	남성대학원졸	-0.561	0.754	0.571	0.457
	상수	-12.402	0.896		0.000

주: 더미변수에 대한 참조집단은 종속변수의 경우, 무자녀 집단, 독립변수의 경우 각각 자가거주가 아닌 경우, 여성중졸, 남성중졸임.

〈표 2-66〉 소득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기계동향 2009년(25~3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남성 소득	0.040	0.020	1.040	0.051
	여성 소득	-0.067	0.012	0.935	0.000
	자가거주	0.439	0.171	1.551	0.010
	여성연령	0.173	0.033	1.188	0.000
	여성고졸	-0.962	1.158	0.382	0.406
	여성대졸	-0.973	1.170	0.378	0.406
	여성대학원졸	-1.712	1.209	0.181	0.157
	남성고졸	0.548	0.598	1.729	0.360
	남성대졸	0.370	0.627	1.448	0.555
	남성대학원졸	0.729	0.785	2.072	0.353
상수	-4.064	1.522		0.008	
두자녀	남성 소득	0.028	0.021	1.029	0.169
	여성 소득	-0.083	0.013	0.920	0.000
	자가거주	0.749	0.176	2.115	0.000
	여성연령	0.424	0.036	1.528	0.000
	여성고졸	-1.731	1.142	0.177	0.129
	여성대졸	-2.010	1.156	0.134	0.082
	여성대학원졸	-2.365	1.196	0.094	0.048
	남성고졸	1.208	0.713	3.345	0.090
	남성대졸	0.717	0.740	2.047	0.333
	남성대학원졸	0.644	0.914	1.905	0.481
상수	-11.347	1.605		0.000	
다자녀	남성 소득	0.084	0.041	1.088	0.039
	여성 소득	-0.094	0.021	0.910	0.000
	자가거주	1.134	0.278	3.108	0.000
	여성연령	0.606	0.068	1.833	0.000
	여성고졸	-2.252	1.224	0.105	0.066
	여성대졸	-3.524	1.281	0.029	0.006
	여성대학원졸	-3.956	1.481	0.019	0.008
	남성고졸	-0.296	0.805	0.744	0.713
	남성대졸	-1.347	0.911	0.260	0.139
	남성대학원졸	-0.523	1.434	0.593	0.715
상수	-17.704	2.468		0.000	

주: 더미변수에 대한 참조집단은 종속변수의 경우, 무자녀 집단, 독립변수의 경우 각각 자가거주가 아닌 경우, 여성중졸, 남성중졸임.



〈표 2-67〉 소득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기계동향 2009년(35~4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남성 소득	0.035	0.026	1.036	0.175
	여성 소득	-0.011	0.020	0.989	0.572
	자가거주	0.737	0.269	2.090	0.006
	여성연령	0.038	0.049	1.039	0.440
	여성고졸	0.646	0.539	1.909	0.231
	여성대졸	0.932	0.621	2.539	0.133
	여성대학원졸	1.310	0.885	3.706	0.139
	남성고졸	0.376	0.558	1.456	0.501
	남성대졸	0.601	0.656	1.823	0.360
	남성대학원졸	-0.422	0.943	0.656	0.654
상수	-1.702	2.097		0.417	
두자녀	남성 소득	0.051	0.024	1.052	0.034
	여성 소득	-0.001	0.019	0.999	0.962
	자가거주	0.913	0.252	2.492	0.000
	여성연령	0.084	0.046	1.088	0.069
	여성고졸	0.590	0.478	1.804	0.217
	여성대졸	1.082	0.560	2.949	0.053
	여성대학원졸	1.429	0.827	4.173	0.084
	남성고졸	0.735	0.502	2.086	0.143
	남성대졸	0.389	0.601	1.475	0.517
	남성대학원졸	-0.644	0.864	0.525	0.456
상수	-2.641	1.961		0.178	
다자녀	남성 소득	0.050	0.026	1.051	0.059
	여성 소득	-0.009	0.020	0.991	0.648
	자가거주	0.874	0.269	2.397	0.001
	여성연령	0.107	0.049	1.112	0.031
	여성고졸	0.686	0.520	1.985	0.187
	여성대졸	0.959	0.605	2.609	0.113
	여성대학원졸	1.544	0.894	4.681	0.084
	남성고졸	0.409	0.537	1.505	0.446
	남성대졸	-0.778	0.654	0.460	0.235
	남성대학원졸	-1.816	1.018	0.163	0.075
상수	-4.414	2.093		0.035	

주: 더미변수에 대한 참조집단은 종속변수의 경우, 무자녀 집단, 독립변수의 경우 각각 자가거주가 아닌 경우, 여성중졸, 남성중졸임.



제6절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가계자산조사를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살펴보았다(<표 2-68> ~ <표 2-70>). 먼저, 소득 5분위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25~44세 전체 집단의 경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5~29세, 30~34세 집단에서는 2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으며, 35~39세, 40~44세 집단에서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총자산 5분위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25~44세 전체 집단의 경우, 총자산분위가 올라갈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5~29세, 30~34세 집단에서는 1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4·5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출산이 완료된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반대로 바뀌었는데, 35~39세, 40~44세 집단에서는 5분위 가구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1·2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25~44세 전체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순자산분위가 올라갈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5~29세, 30~34세 집단에서는 1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5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출산이 완료된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반대로 바뀌었는데, 35~39세, 40~44세 집단에서는 4·5분위 가구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2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은 소득을 비롯한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2-71>). 다항로지 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은 무자녀 집단과 비교할 때, 한자녀·두자녀·다자녀 출산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2-68〉 소득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가구)

구분	25~4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1	1.59	162	0.55	11	1.29	41	1.66	47	1.92	63
2	1.55	478	0.92	39	1.45	134	1.71	144	1.66	161
3	1.71	633	0.73	33	1.42	146	1.79	219	1.97	235
4	1.71	699	0.69	32	1.32	145	1.81	245	1.94	277
5	1.78	636	0.80	25	1.18	95	1.81	189	2.00	327

자료: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표 2-69〉 총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가구)

구분	25~4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1	1.59	458	0.91	57	1.47	133	1.71	125	1.85	143
2	1.54	627	0.63	38	1.27	192	1.67	225	1.87	172
3	1.70	633	0.77	31	1.38	124	1.79	219	1.89	259
4	1.78	502	0.63	8	1.27	81	1.87	163	1.94	250
5	1.93	388	0.50	6	1.39	31	1.92	112	2.03	239

자료: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표 2-70〉 순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가구)

구분	25~4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출생아수	가구수
1	1.60	511	0.89	57	1.45	155	1.74	144	1.89	155
2	1.53	620	0.65	40	1.28	180	1.64	224	1.85	176
3	1.69	636	0.81	31	1.35	127	1.80	216	1.89	262
4	1.81	474	0.50	8	1.33	70	1.91	154	1.93	242
5	1.91	367	0.50	4	1.31	29	1.88	106	2.03	228

자료: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년.

〈표 2-71〉 소득과 자산이 출신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가계자산(25~4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소득	0.135	0.177	1.145	0.446
	자산	-0.011	0.082	0.989	0.897
	자가	0.304	0.250	1.355	0.225
	전세	0.154	0.238	1.167	0.516
	여성연령	0.117	0.019	1.124	0.000
	가구주 고졸	0.717	0.349	2.048	0.040
	가구주 대졸	0.538	0.374	1.713	0.150
	가구주 대학원졸	0.574	0.523	1.775	0.272
	상수	-5.060	1.445		
두자녀	소득	0.235	0.168	1.265	0.161
	자산	0.064	0.079	1.067	0.417
	자가	0.635	0.237	1.886	0.007
	전세	0.027	0.229	1.028	0.905
	여성연령	0.236	0.018	1.266	0.000
	가구주 고졸	1.327	0.331	3.770	0.000
	가구주 대졸	0.915	0.354	2.498	0.010
	가구주 대학원졸	0.812	0.496	2.251	0.102
	상수	-10.743	1.386		
다자녀	소득	0.424	0.211	1.528	0.044
	자산	-0.042	0.101	0.959	0.680
	자가	0.855	0.323	2.351	0.008
	전세	0.124	0.327	1.132	0.704
	여성연령	0.327	0.025	1.386	0.000
	가구주 고졸	1.087	0.391	2.966	0.005
	가구주 대졸	0.260	0.429	1.297	0.544
	가구주 대학원졸	0.416	0.607	1.516	0.493
	상수	-16.338	1.789		



제7절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분석한 최은영·박영실(2010)의 후속 연구로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자산은 영유아보육법 상의 지원 대상 설정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주요 출산 정책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은 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소득과 자산 관련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관건인데, 관련 기존 연구들은 소득과 자산을 대리 변수를 통해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국내의 관련 연구들은 분석 자료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소득과 자산에 관한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자산조사 등 통계청의 가용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여러 자료를 분석함과 동시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원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모든 연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시계열적 일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주택총조사 확률모형을 살펴보면, 주택점유 형태나 타지주택 소유여부 등의 자산 관련 변수가 여성의 연령, 학력에 비해 계수의 절대값과 오즈비가 크며, 다른 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 동안 낳는 총출생아수는 교육수준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최은영·박영실(2010)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를 연령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가 많아졌다. 소득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는 소득 관련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25~44세 전체 유배우 여성 집단을 보면, 대체로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 평균 출생아수보다 적으며,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 평균 출생아수보다 많다. 세부적인 연령집단으로 들어가 보면 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간의 정적인 관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출산이 진행 중인 집단에서는 소득과 출산과의 관계가 부적, 역 U자형 등 시점에 따라 역동적이었으나, 출산이 완료된 집단에서는 소득과 출산과의 정적인 관계가 시계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소득과 출산과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과 출산과의 정적인 관계는 25~29세 집단에서 40~44세 집단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집



단이 소득이 적은 집단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갖는 소득 효과를 보여주었다. 출산이 진행 중인 집단, 특히 25~29세 집단에서는 소득과 출산 간에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5분위 고소득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것은 젊은 고소득 집단에서 자녀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소득 5분위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에 따르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5~44세 전체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25~34세 집단의 경우 맞벌이 여부, 마지막으로 35~44세 집단의 경우는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 변수로, 25~34세 집단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5~34세 집단과 35~44세 집단에서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25~34세 집단에서는 취업자인 경우보다는 비경활·실업자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더 많은 반면, 35~44세 집단에서는 반대로 취업자인 경우가 비경활·실업자보다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동일한 소득분위 내에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패턴을 살펴보면, 25~44세의 경우 1·2·3분위 가구에서는 대체로 취업자가 비경활 및 실업자에 비해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5분위 가구에서는 그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서 검증해 본 결과 연령대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변수는 25~44세 집단의 경우 소득분위인데 반해, 25~34세 집단에서는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만 소득분위에 따른 유의미성은 시점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았다. 한편, 35~44세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체와 동일해, 전반적으로 소득이 평균 출생아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25~44세 유배우 여성의 출산 확률에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을 통제된 후 소득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 소득의 정적인 효과와 여성 소득의 부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무자녀에 비해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증가하여 소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무자녀에 비해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소득은 소득 효과보다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자산조사를 통해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살펴본 결과 25~44세 전체 집단의 경우 대체로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5~44세 전체 집단의 총자산 5분위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경우도 총자산분위가 올라갈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출산이 완료된 35~39세, 40~44세 집단에서는 5분위 가구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1·2분위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은 소득을 비롯한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사회학회, 19, 119-149.
- 권태환, 2008, 출산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인구·주택, 통계개발원, 191-216.
-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57-95.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113-137.
- 김형석·김경희, 2010, STATA를 이용한 통계실무, 통계청 STATA 연구회.
- 김홍배·최준석·오동훈, 2008, 여성의 출산율 결정 요인과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지역연구, 24(1), 23-37.
- 류덕현, 2006, 출산율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현안분석, 2, 26~45.
- 민희철, 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1(1), 41-61.
- 신혜원·최명섭·김의준, 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 도시연구, 10(2), 33-47.
- 이시원·김영기·이성진·하상근, 2004, 출산감소의 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8(4), 207-231.
- 이희연, 2008, 인구가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국토연구원 보고서.
- 최은영·박영실, 2010,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통계개발원 연구 보고서.
- Anna Cristina d' Addio and Marco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225-256.
- Becker, G. 1993, Nobel Lecture: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385-409.
- Becker, Gary S. and Nigel Tomes. 1976.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S143-S162.
- Blacklow, P., 2006, *Fertility Choices of Australian Couples*,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Discussion Paper.
- Bollen, K.A., J. L. Glanville, and G. Stecklov, 2007, *Socioeconomic Status, Permanent Income, and Fertility: A Latent Variable Approach*, *Population Studies*, 61(1), 15-34.
- Del Boca,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 in Ital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Discussion Papers 427.
- Easterlin, R. A. 1966. On the Relation of Economic Factors to Recent and Projected Fertility Changes, *Demography*, 3(1), 131-153.
- Easterlin, R. A. 1978.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Fertility: A Synthesis, in Charles Tilly(ed.), *Historical Studies of Changing Fertil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edman, D. S. and A. Thornton, 1982, *Income and Fertility: The Elusive Relationship*,



- Demography*, 19(1), 65-78.
- Fulop, M. 1977,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st*, 21(1), 5-13.
- Heckman, J. and J. Walker, 1990,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58(6), 1411-1441.
- Hotz, V. J., J. A. Klerman and R. J. Willis, 1996,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A Survey*, RAND Labor and Population Program Working Paper Series 96-09.
- Jones, G., Tay-Straughan, P. and Chan, A., 2008,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Dilemmas*, Routledge.
- Kim, Doo-Sub, 1983, The Curvilinearity between Income and Fertility: Evidence from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XII,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1-20.
- Kohler, H. P., Billari, F. C. and Ortega J. A., 2006, Low Fertility in Europe: Causes, Implication and Policy Options, in F. R. Harris(ed.), *The Baby Bust: Who Will Do the Work? Who Will Pay the Tax?* Land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48-109.
- Leibenstein, H., 1975,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1), 1-31.
- Macunovich, D., 1996, Relative Income and Price of Time: Exploring Their Effects on US Fertility and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223-257.
- Macunovich, D., 2003,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in Karine Moe(ed.), *Economics of Gender and the Family*, Blackwell Publishers.
- Merrigan, P. and Y. St. Pierre, 1998, An Econometric and Neoclassical Analysis of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in Canada from 1950 to 1990, *Journal of Population Econometrics*, 11(1), 29-51.
- Robinson, W. C., 1997,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Over Three Decades, *Population Studies*, 51, 63-74.
- Sleebos, Joëll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Tasiran, A. 1995, *Fertility Dynamics: Spacing and Timing of Births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Elsevier Publisher, New York.
- Zhang, J.-Quan, J. and Van Meerbergen, P., 1994, The effect of tax-transfer policies on fertility in Canada, 1921-88,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 181-201.



<부 록>

<부표 2-1> 경제적 요인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센서스(25~3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자가거주	0.370	0.027	1.447	0.000
	전세거주	0.294	0.027	1.342	0.000
	타지주택소유	0.086	0.034	1.090	0.012
	여성 연령	0.040	0.004	1.041	0.000
	남성 고졸	0.153	0.069	1.166	0.026
	남성 대졸	0.190	0.072	1.209	0.008
	남성 대학원졸	0.127	0.082	1.136	0.119
	여성 고졸	0.246	0.075	1.279	0.001
	여성 대졸	0.135	0.079	1.144	0.088
	여성 대학원졸	-0.077	0.093	0.926	0.406
	남성 실업	-0.030	0.071	0.970	0.670
	남성 비경활	-0.503	0.044	0.605	0.000
	여성 실업	-1.636	0.085	0.195	0.000
	여성 비경활	0.849	0.020	2.337	0.000
상수	-0.738	0.143		0.000	
두자녀	자가거주	0.590	0.027	1.803	0.000
	전세거주	0.152	0.027	1.164	0.000
	타지주택소유	0.223	0.034	1.250	0.000
	여성 연령	0.309	0.004	1.362	0.000
	남성 고졸	0.032	0.067	1.032	0.638
	남성 대졸	-0.214	0.070	0.808	0.002
	남성 대학원졸	-0.309	0.081	0.734	0.000
	여성 고졸	0.257	0.073	1.294	0.000
	여성 대졸	-0.398	0.078	0.672	0.000
	여성 대학원졸	-1.163	0.095	0.312	0.000
	남성 실업	-0.277	0.072	0.758	0.000
	남성 비경활	-0.805	0.046	0.447	0.000
	여성 실업	-1.589	0.082	0.204	0.000
	여성 비경활	1.082	0.020	2.951	0.000
상수	-8.643	0.147		0.000	
다자녀	자가거주	0.529	0.038	1.698	0.000
	전세거주	-0.246	0.040	0.782	0.000
	타지주택소유	0.287	0.047	1.333	0.000
	여성 연령	0.414	0.007	1.513	0.000
	남성 고졸	-0.530	0.080	0.588	0.000
	남성 대졸	-1.126	0.086	0.324	0.000
	남성 대학원졸	-1.004	0.111	0.366	0.000
	여성 고졸	-0.280	0.087	0.756	0.001
	여성 대졸	-1.386	0.097	0.250	0.000
	여성 대학원졸	-2.530	0.178	0.080	0.000
	남성 실업	-0.372	0.109	0.689	0.001
	남성 비경활	-0.774	0.072	0.461	0.000
	여성 실업	-2.122	0.215	0.120	0.000
	여성 비경활	1.217	0.030	3.378	0.000
상수	-12.830	0.226		0.000	

〈부표 2-2〉 경제적 요인이 출산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 결과: 센서스(35~44세)

종속	독립	계수	표준오차	오즈비	유의확률
한자녀	자가거주	0.652	0.031	1.920	0.000
	전세거주	0.366	0.034	1.442	0.000
	타지주택소유	0.189	0.040	1.207	0.000
	여성 연령	0.034	0.004	1.034	0.000
	남성 고졸	0.214	0.045	1.239	0.000
	남성 대졸	0.491	0.056	1.634	0.000
	남성 대학원졸	0.443	0.079	1.558	0.000
	여성 고졸	0.188	0.044	1.206	0.000
	여성 대졸	0.199	0.059	1.220	0.001
	여성 대학원졸	-0.130	0.090	0.879	0.151
	남성 실업	0.120	0.077	1.127	0.120
	남성 비경활	-0.302	0.043	0.740	0.000
	여성 실업	-0.931	0.080	0.394	0.000
	여성 비경활	0.130	0.025	1.138	0.000
	상수	-0.541	0.183		0.003
두자녀	자가거주	1.171	0.029	3.226	0.000
	전세거주	0.557	0.032	1.745	0.000
	타지주택소유	0.284	0.038	1.328	0.000
	여성 연령	0.063	0.004	1.065	0.000
	남성 고졸	0.341	0.042	1.406	0.000
	남성 대졸	0.685	0.052	1.983	0.000
	남성 대학원졸	0.713	0.075	2.041	0.000
	여성 고졸	0.275	0.041	1.317	0.000
	여성 대졸	-0.089	0.055	0.914	0.106
	여성 대학원졸	-0.912	0.085	0.402	0.000
	남성 실업	-0.151	0.072	0.860	0.037
	남성 비경활	-0.647	0.040	0.523	0.000
	여성 실업	-1.156	0.070	0.315	0.000
	여성 비경활	0.016	0.023	1.017	0.483
	상수	-0.555	0.172		0.001
다자녀	자가거주	1.183	0.032	3.263	0.000
	전세거주	0.309	0.036	1.362	0.000
	타지주택소유	0.335	0.040	1.398	0.000
	여성 연령	0.064	0.004	1.066	0.000
	남성 고졸	0.026	0.044	1.026	0.563
	남성 대졸	0.227	0.056	1.255	0.000
	남성 대학원졸	0.466	0.080	1.594	0.000
	여성 고졸	-0.065	0.043	0.937	0.137
	여성 대졸	-0.727	0.059	0.483	0.000
	여성 대학원졸	-1.676	0.098	0.187	0.000
	남성 실업	-0.210	0.080	0.810	0.009
	남성 비경활	-0.703	0.045	0.495	0.000
	여성 실업	-1.813	0.095	0.163	0.000
	여성 비경활	0.010	0.025	1.010	0.692
	상수	-1.464	0.184		0.000